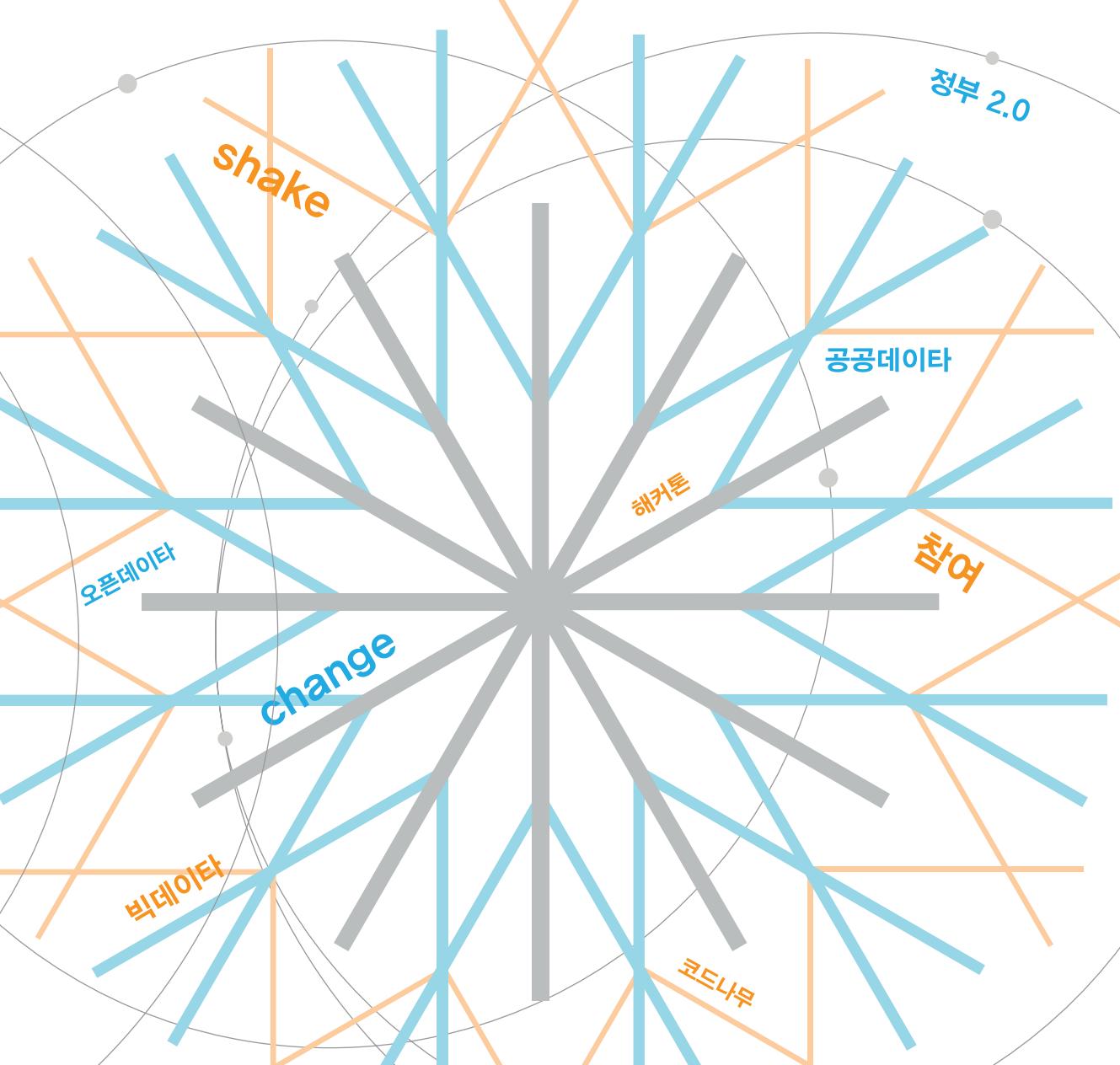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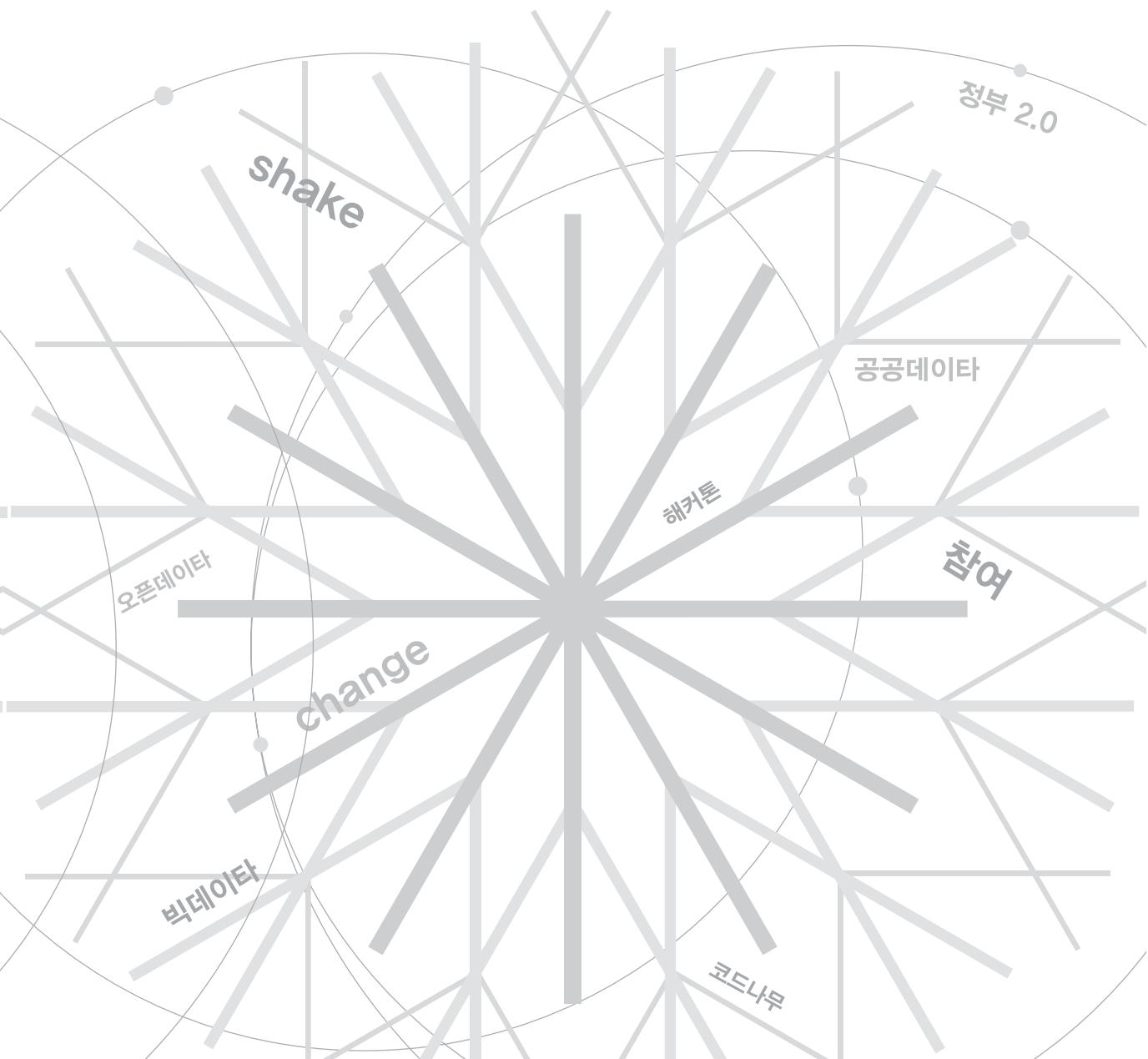
LET'S READ

공 공 데 이 터 캠 프 2 0 1 2 , 2 0 1 3



LET'S READ

공 공 데 이 터 캠 프 2 0 1 2 , 2 0 1 3



목차

이 책을 만든 사람들

04

01. 코드나무를 소개합니다

06

코드나무는

06

코드나무가 하는 일

07

02. 코드나무의 시작

09

03. 공공데이터캠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1

2012년 Let's Shake! 공공데이터 캠프

12

2013년 공공데이터 렛츠

30

2013년 공공데이터 캠프

41

04. 코드나무 최근 활동	62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	62
2013년 과학기술오픈데이터 활용 캠프	67
<hr/>	
05. 국내 공공데이터 발자취	70
<hr/>	
06.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71
<hr/>	
07. 2013년 현재 공공데이터 지형도	73

이 책을 만든 사람들

Let's Read! 공공데이터 캠프는 2012, 2013 두 해 동안 공공데이터 캠프를 함께 기획/운영한 코드나무 팀과 수많은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후원자 여러분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록물입니다. 모두 일일이 적지 못하였어도 함께 한 분들의 마음과 수고가 두고두고 그 가치를 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셜펀딩 텀블벅으로

후원하신 분들

강신범	강현숙	고예슬	권난실
길재섭	김도현	김동범	김범준
꼬마요다	백종규	션	오원석
옥상훈	유영필	윤병국	윤종수
이건임	이두영	이명진	이예연
이장	이정미	이정표	이철혁
장진철	조용현	최정희	최형욱
펭도	echojuliett	Eunhwa Lee	Jae Pil Shim
Jason Han	Lim Young Je	Myung Sahn Juhn	
woja	Taehwan Kwon		

후원기관



글쓴이와 편집팀

강현숙	윤종수	양석원	이예연
임영제	장상미	정다예	조아신



Copyright © 2013 by Codenamu Some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ISBN 979-11-951672-0-3 03300

가능



공유가능(Share)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수정가능(Remix)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



저작자표시(BY, Attribution)

원저작자를 “Codenamu” 혹은 “코드나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종이책과 eBook으로 출간됩니다. 감상, 의견, 아이디어, 제안 등 독자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eBook의 PDF 파일은 스크립트 주소(<http://tiny.cc/letsread2013>)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합니다. 댓글과 트랙백 등을 남겨주세요.

- 트위터 @codenamu 에 멘션을 보내주세요.
- 블로그 <http://codenamu.org> 를 방문해주세요.
- 페이스북 그룹 ‘열려라 공공데이터’ <https://www.facebook.com/groups/OpenGov20/> 에서 만나요.



01 코드나무를 소개합니다.

시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오픈커뮤니티, 코드나무



코드나무는

시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코드나무는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에 옮기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공정보 개방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코드나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공정보 개방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 새로운 공공가치의 창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드나무가 하는 일

Let's Shake 공공데이터 캠프

제 1 회 Let's Shake 공공데이터 캠프 – 2012년 7월

제 2 회 Let's Shake 공공데이터 렛츠 & 캠프 2013년 7월

2012년 처음 열린 코드나무 공공데이터 해커톤은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하는 자리입니다.

/ 해커톤

해커톤(Hackathon)은 무언가를 만든다, 파고든다는 의미인 Hack과 장시간 달리기를 의미하는 Marathon의 합성어로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같이 만든다, 파고든다는 의미입니다.

코드잼

제 1회 코드잼 공공데이터 코드마실 2012년 9월

제 2회 코드잼 공공데이터 ‘가을 운동회’ 2012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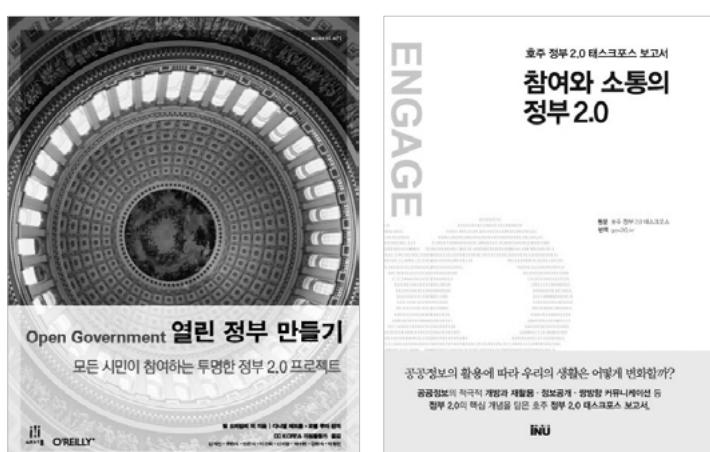
번역 출간 및 논문

[도서] 열린정부만들기 :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 2.0 프로젝트

[도서] 참여와 소통의 정부2.0 : 호주 정부2.0 태스크포스 보고서

[논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과제

[번역] 해커톤 계획하기



공공데이터 서비스/프로젝트

서울살이의 속살을 살펴보자 'Seoul A to Z'

- <http://seoulaz.codenamu.org>

내가 다니는 병원, 안심하고 믿어도 될까? '안심병원'

- <http://ansim.me>

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 재정 모니터링 서비스

- <http://gilstar.com/watcher>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이야기와 이슈를 전달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

인포그래픽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

- <http://www.bloter.net/archives/161600>

코드나무 뉴스레터 '공공정보 이메일 뉴스레터' / 구독 신청

- <http://eepurl.com/t6GGf>

코드나무랑 친해지기

홈페이지

- <http://codenamu.org>

페이스북 그룹 : 열려라 공공데이터

- <https://www.facebook.com/groups/243881459064203>

트위터

- <https://twitter.com/codenamu>

연락하기

- <http://codenamu.org/contact>

정리 / 양석원



02 코드나무의 시작

CC Korea 활동가 6명이 1년 넘게 번역
크리스마스 휴일에도 모여
따끈한 책을 받았을 때 참 뿌듯

번역 모임에서 스터디 모임으로 … 10년 작당모임(?)으로 진화

정부2.0 / 공공정보 개방 / 열린 정부… 외부에서 정부2.0에 대해서 소개를 해 달라는 강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개념이 덜 잡힌 상태에서 구글링을 통해 여기저기 자료를 검색해서 해외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발표 내용을 짜깁기하여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주에서 민.관 TF에서 [Engage - 정부2.0을 위한 가이드라인] 번역서를 출판한 후에 에이콘 출판사에서 팀 오라일리 출판사의 [Open Government] 번역을 CC KOREA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CC KOREA 활동가중에 6명의 지원자로 번역 그룹을 결성해서 1년 넘게 번역을 했습니다. 책이 워낙 두꺼워서 번역을 하는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따끈한 책을 받았을 때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들 직장인들이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일 동안 모여서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끝난 후에 번역서를 가지고 ‘Open Government’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몇몇 카페를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스터디 기록 : http://bit.ly/opengov_study) 개발자, 디자이너, 법률가, 스타트업 사업가 겸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과 열린 정부의 개방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또 국내에서는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논의했습니다. 그때 “코드나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주 스터디 모임을 가졌던 정독 도서관 정문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더연두’에서 ‘더연두’로 프로젝트 워킹 그룹 이름을 지을 뻔했던 기억도 나네요.

정부2.0 ...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스터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면 좋을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워낙 난상 토론이었고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져서 무슨 이야기를 논의했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사람들은 각자 활동하고자 하는 방식은 약간씩 달랐습니다. 그만큼 정부2.0은 방대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정부2.0을 이뤄낼 수 있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함께 논의를 했던 사람들이 간신히 합의점을 찾게 된 결론은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시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고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였습니다.

CC KOREA 활동가가 코드나무의 주축이였지만 코드나무라는 새로운 워킹 그룹을 만든 이유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이유였습니다. 우선 시맨틱웹 개발자그룹을 찾아가서 함께 코드나무 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흔쾌히 코드나무 활동에 동의해 주셔서 스터디 그룹 멤버들과 함께 첫 번째 코드나무 공공데이터 캠프(1박 2일 해커톤)를 기획하게 되었고, 두 번째 해커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10년은 해야지... 7년 후의 코드나무 모습은?

코드나무 이름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드나무 활동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코드나무 활동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2.0 -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속적인 활동들을 함께 만들자는 우리 활동의 철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스터디를 했던 분들이랑 농담반 진담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10년은 해야지...”

앞으로 7년 후에 코드나무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글 / 제니퍼



03 공공데이터캠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부2.0 스터디에서 시작해 무언가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에
무턱대고 추진한 40명 미만 정원의 해커톤 자리였는데
막상 공지를 띄우고 사람을 모아보니
예상 인원의 두 배 정도 되는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이 책을 쓰는 2013년 하반기 시점으로, 여태까지 코드나무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연 1회, 총 2회의 공공데이터 캠프를 열었습니다. “Let’s Shake!”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시민과 활동가, 공무원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즐겁고 활기찬 자리였습니다.

첫 해. 정부2.0 스터디에서 시작해, 무언가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에 무턱대고 추진한 40명 미만 정원의 해커톤 자리였는데… 막상 공지를 띄우고 사람을 모아보니 예상 인원의 두 배 정도 되는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정부2.0을 고민하는 건 우리 뿐 아닐까?’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공공데이터와 자기 재능을 활용한 시민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 해엔 2주에 걸쳐 렛츠와 캠프를 열었습니다. 렛츠(LETS)는 주제를 놓고 여럿이서 자유롭게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 브레인스토밍하며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방식의 모임입니다. 캠프에 앞서 공공데이터의 현상황을 살펴보고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렛츠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캠프로 이어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렛츠와 캠프 양 행사에 참석한 인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캠프를 거치며, 약 130명 정도의 인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구현에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물들을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2012년 Let's Shake! 공공데이터 캠프

개요

일시 : 2012년 7월 20일(금) ~ 21일(토)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인원 : 50명

프로그램

1일째 : 7월 20일(금)

18:30 ~ 19:30	저녁 먹기
19:40 ~ 19:50	행사 소개(사회자)
19:50 ~ 20:10	브라이언 허버트(Brian Herbert)의 “Crowdmap” 소개
20:10 ~ 20:40	행사 진행 소개 Staff 소개 등
20:40 ~ 21:40	아이디어 짜고 발표하기
21:40 ~ 21:50	팀 구성하기
21:50 ~ 22:00	방배정 & 편안한 옷 바꿔입기
22:00 ~ 22:30	1박 2일동안 구현할 아이디어 스펙 정하기
22:30 ~ 23:00	아이디어 공유(발표)
23:00	쭈욱 기획, 개발, 디자인

2일째 : 7월 21일(토)

~ 11:00	쭈욱 아이디어 구현하기
11:00 ~ 12:00	중간 상황 공유(발표)
12:00 ~ 13:00	점심
13:00 ~ 16:00	끝까지 아이디어 구현하기
16:00 ~ 17:00	최종 결과물 공유

함께 하신 분들

캠프에 직접 참여한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강성희, 강성희, 강소리, 강신범, 강철, 권오현, 권정혁, 권태환, 김다희, 김성준, 김수린, 김수정, 김진선, 김창준, 남연주, 노소영, 민세희, 박민우, 박성수, 박은정, 박훈준, 송기원, 양석원, 윤병국, 이유진, 이은호, 이정균, 이정표, 이주희, 이철혁, 이학선, 이현수, 장승훈, 장인수, 장지윤, 전동규, 조인국, 주남정, 최웅엽, 최치원, 최현민, 최현지, 홍호택, 황연희, Brian Herbert

캠프 기획팀

강현숙, 김범준, 김학래, 김후곤, 민경태, 민세희, 양석원, 오원석, 윤종수, 이명진, 장상미, 전명산, 정다예, 조아신 / 티셔츠 디자인 : 소원영

캠프 지원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구글 코리아

협찬

서울시, NHN, Daum

텀블벅 소셜펀딩 <https://tumblbug.com/codenamu2012>

Yoonyoung Nam, 운짱, Sang-Kyun Kim, 손지연, Kim Sung Hyuk, 장윤석, 조명대, 이정표, 윤진수, 선, Cheol Kang, Hun Han, Minaa Son, 다다예, Kwang Sun Choi, 조아신, Ja-Yeon Park, 강신범, 정승구, 민세희, 이종은, nicklee, Haklae Kim, Kyoungcheol Han, Claude Yun, Sungkyu Lee, 김태경, 정희정, 이건임, 이장, 김동범, 조성도, 김후곤, 민경태, 이아름, 강현숙, 김범준, 소원영, 정승구, Jaeshin Lee, Kyungsoo Lee, Hj Jung, 구름, Young-Sung Son

현/장/스/케/치

2012년 7월 20일, 일명 ‘불금’ 저녁부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코드나무의 <Let's Shake! 공공데이터 캠프>가 열렸습니다. 스텝들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어떤 사람들이 올까 신나는 마음으로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NHN과 다음에서 후원 받은 물건들로 개인 꾸러미가 구성 됐어요. 모두에게 에코백과 소소한 기념품이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코드나무의 로고로 만든 투명 스티커는 인기 폭발이었답니다 :)



7시까지 모여서 7시 반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잠시 후 7시 45분에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어요. 연말 시상식 스타일로다가 CC KOREA 강현숙 실장님 먼저 나와서 사회자인 웹 사이언스 워크그룹의 오원석님을 소개하셨고요^ㅁ^ 정식으로 캠프가 개회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정부2.0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자리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인상적인 개회사였어요. CC KOREA의 프로젝트 리드 윤종수님의 스피치에 이어, 우샤히디의 PM 브라이언 허버트(Brian Herbert)가 우샤히디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우샤히디란?

지도 기반의 오픈 플랫폼, 크라우드매핑 툴. 다양한 채널로부터 받은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해줍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아이티 지진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 재해 지도, 런던 지하철 파업 지도, 캐나다 국민 투표 지도 등이 있어요.

<http://www.ushahidi.com>

크라우드매핑은 위치정보와 시각화 등을 집단지성을 빌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 공익 목적 앱에 특히나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지요:) 실제로 이번 캠프에서 우샤히디를 이용해 웹,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 가능한 앱을 만든 팀도 있었어요. 등록할 때 뽑은 제비뽑기 내용 대로 랜덤팀이 구성 되고, 이 팀 대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착실한 참가자분들도 많은 듯 보였습니다:D 서울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기 위해 나오셨는데요, 아이디어 짜기 단계에서부터 활발한 문의와 답변이 오고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짜기 단계에서 발표된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공개하자면요~

랜덤그룹 아이디어 제안

1팀 아이디어 소개 : <http://youtu.be/cQpKtrCAqVk>

- 서울시의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정보API를 정형화된 인포그래픽에 넣어서 하루에 하나씩 알려주는 서비스
- 서울시의 장애인 또는 유모차를 가지고 저상버스에 탑승해야하는 승객을 위해 수 있는 저상버스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서비스

2팀 아이디어 소개 : <http://youtu.be/m5K5POma-Zs>

- 클라우드소싱라이브러리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확장해서 우리 동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대출할 수 있는 앱
- 나는 너의 지난 공약을 알고 있다. : 정치인이 그 공약을 계속 지켜나가면 그 텍스트가 살아있고, 아니면 점점 사라지는 모니터링 시스템
- 미아찾기서비스 : 미아찾기 + 미아를 찾았는데 클리어된 지역을 매핑해나가도록 하는 서비스. 전 국민이 특정시간대에 내 반경 내에 미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3팀 아이디어 소개 : <http://youtu.be/GGT5HWeG9RO>

- Near You : 서울시 내에서 대형마트가 몇개나 있는지에 관한 위치정보/전화번호와 생필품 가격정보를 조합해서 지도상에 어떤 마트에 어떤 물건들이 얼마의 가격에 팔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서비스. 이 바탕 위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생성
- Here 여기 : 서울정보 중 공원이벤트 정보가 뜨는데, 공원도 좋지만 휴일날 어떤 행사에 가고 싶다고 할때, 국내의 각 지역마다 행사정보를 맵에 올려놓아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자봉따봉 :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 노인이나 독거노인분들이 병을 앓거나 자원봉사로 은행을 가거나 공공기관을 가고자 할 때,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는.. 기관이나 자원봉사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요구가 많다는 것을 트위터에 올리고,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서로 엮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4팀 아이디어 소개 : <http://youtu.be/Wof6qdMQuOY> / <http://youtu.be/S5go5j3dbbs>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면 병원 항생제 처방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지도상에서 근처의 병원을 선택 했을 때 그 병원이 항생제를 얼마나 쓰고, 약제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고, 그 병원에 관한 평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 지역별 공중화장실 정보와 범죄율 정보를 결합해서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청결도를 SNS로 이야 기할 수 있는 서비스)
-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데이터 + 게임 = 데이터베이스에 직업과 인물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보는 게임. 만약에 맞추면 그 사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게임.

5팀 아이디어 소개 : <http://youtu.be/xYWFjb-2L3w>

- 하우서울해피 : 비만율, 음주지수, 취업률, 노인복지지수 등등의 정보를 한 곳에 담아보면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지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 평균점을 0 으로 잡고 긍정/부정의 수치들을 취합해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타임라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소셜코멘트 기능을 넣어주도록 함.
-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 앱을 설치한 사람에게 적당한 시간에 알림. 지금 행복하십니까? 확인을 누르면 앱에서는 Yes No 가 있다. 그걸 수집해서 “지금 강남구에 있는 분은 300분이 행복하십니다”.. 이런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보는 앱을 만들어보고 싶다.

6팀 아이디어 소개 : <http://youtu.be/aSY5buWaBmY>

- 보도블럭 와치 : 보도블럭이 얼마나 마모율이 높아서 교체하는지 통계를 내고 데이터를 쌓고 싶다. 그동안 보도블록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받아서 정리한 후에 이후부터 보도블록 교체시 얼마나 기간이 주어졌는지,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해보는 서비스
- 내가 관심있는 지역이나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변의 생활환경에 관한 통계치를 내서 보여주는 서비스(정보는 사람 표정으로 직관적으로 알려주도록 함)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부정적인 표정이라면 왜 그런지를 알려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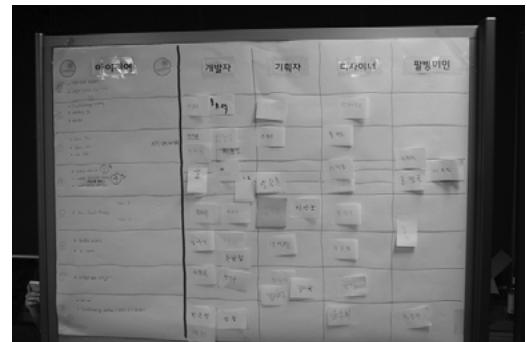
7팀 아이디어 소개 : http://youtu.be/_OW0CR7CVwE

- 지켜보고 있다 :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서울시 클린재정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예산이 지출될 때마다 데이터가 올라오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시각화하는 서비스. 그리고 잘 사용한 예산은 SNS를 통해서 소문내고 칭찬해줄 수 있도록 함. 부정적으로 쓰인 예산에 관한 피드백들은 모아서 다음 해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8팀 아이디어 소개 : <http://youtu.be/aMfpm3-hpnk>

- 정치 관련 :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 비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나와있다. 이에 관한 것 + 정치인 한명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이 정보를 국회의 사당의 좌석 배치도를 기반으로 표현)
- 크라우드 소싱방식으로 묶음 상품에 관한 정보들을 모아보는 아이디어
 - 크라우드 소싱을 위한 플랫폼 만들기
 - 근처 공연 정보를 push로 알려주기
 - 위치기반으로 장애인과 봉사자를 연결시켜주는 자원봉사 연결 시스템
 - 낱개 상품보다 묶음 상품이 비싸면 신고하는 시스템
 - 빗물받이 구멍이 막혀있으면 신고하는 시스템
 - 주위에 소화전/빗물받이를 입양받아서 자신이 책임지고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모두 8개의 아이디어 선정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 선택



이 중 실제 구현 단계로 들어간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과 어떻게 써먹으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를 열심히 고민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을 게시판에 붙이고, 아이디어 마켓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끼리 모여 팀을 구성했어요. 이 팀 멤버들이 진짜 밤을 새워 함께할 팀원들이 되었지요. 랜덤팀에서 크게 높기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밤 새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사진과 함께 조금 소개해볼까요? ^ㅁ^



1. 아이맥 가져오신 분

노트북이 없음+이사 중이라 겸사겸사 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크게 남들과는 다르게 노트북 아닌 대짜 아이맥을 가져오신 참가자가 계셨어요. 실제 사용은 안 하셨구요, 사진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아주신 스태프 민경태님과 트레이드 하셨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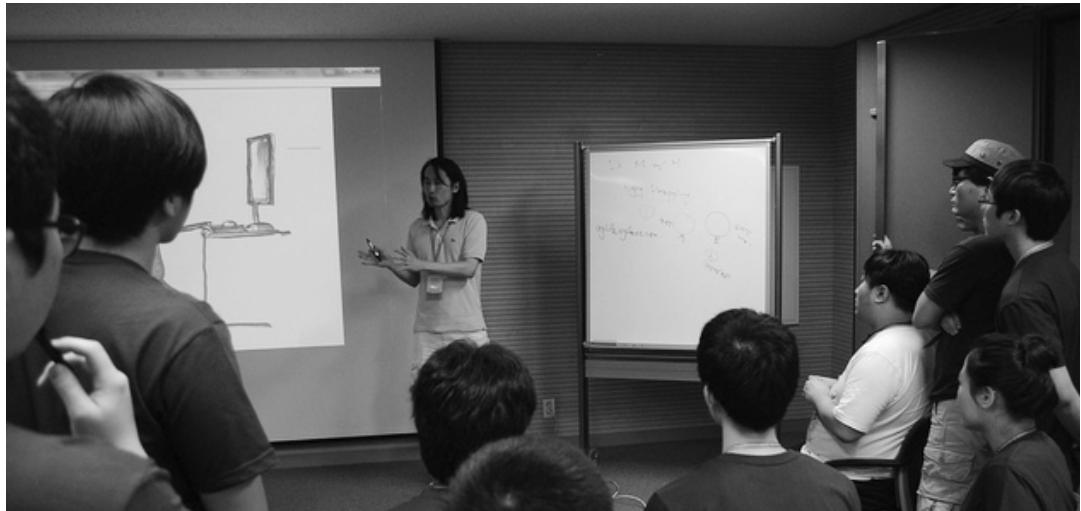
2. 최연소 참가자 초등학생 고등학생

남녀노소에게 사랑 받는 코드나무(?) 최연소 멤버 두 명이 “Happy Catalyst”팀에 있었답니다. 한 명은 귀여운 여고생 멤버였구요, 또 한 명은 참가자 이정표님과 함께 온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어요. 둘 다 진지하게 데이터 리서치에 임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3. 김창준님의 애자일방법론 특강

애자일 컨설팅으로 유명하신 김창준님이 사정으로 일찍 떠나시게 됐는데요, 그 전에 행사 장소 한 구석에서 급 애자일방법론 특강을 하고 가셨습니다. 참가자 중 대다수가 작은 화이트보드 앞에 모여 귀를 기울였어요. 김창준님의 독특한 헤어스타일 덕에 멀리서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장면처럼 보였다는 썰.



4. 국민체조

오밤 중에 야식 드시면 졸리실까 싶어 스텝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 백수 추리닝 2인조의 국민체조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분들이 열성적으로 따라해주셨어요.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 당사자는 민망해서 아직도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후문.





5. 야식과 함께 응원 방문

잠도 못주무시는데 먹을 거라도 넉넉하게 드시라고 코드나무 스탭들이 열심히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한 야식 메뉴! 여기에 덧붙여 중간 중간 다른 메뉴를 사들고 응원 방문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덕분에 맛있는 과일과 김밥 잘 먹었답니다. 감사합니다!

6.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응원차 방문하셨습니다. 팀별로 프로젝트 설명을 듣고 아이디어 교환을 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좋은 취지의 캠프는 매달 열렸으면 좋겠다는 빌언으로 스탭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4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박 2일의 시간이 어느새 마무리되고 각 팀별 발표와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팀별 결과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뒤에 이어집니다.)



투표/심사 결과, 1위는 파수꾼팀의 <지켜보고 있다>에 돌아갔습니다. 2위는 <안심병원>, 3위는 <국회 내비게이터>, 4위는 <Happy Catalyst>가 차지했네요. 참고로 1위팀은 중간에 다녀가신 서울시장님의 깜짝 초청으로 추후 시장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스텝들도 예상하지 못한 세렌디피티였어요^ㅁ^

1박2일의 짧았지만 유의미한 행사가 끝나고, 현재는 참가자분들과 페이스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다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뿌듯했어요. 공공데이터가 개방된 만큼民間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좋은 리소스들이 개방될 거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아이디어와 구현물들이 나와줄 거라고 믿어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업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부2.0, 코드나무의 이번 캠프가 그 소중한 첫 걸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결/과/물/소/개

/ 현장기록과 팀별 기록문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정리 : 정다예

1. 리콜라 팀 <우리동네 좋은 병원 찾기 - 안심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병원 정보, 병원평가 정보를 이용.

동네 병원중에서 친절하고, 항생제를 많이 쓰지 않는 좋은 병원 찾기

관련문서 : <http://bit.ly/codenamu2012-team1>

초기 아이디어 발표 : <http://youtu.be/cQpKtrCAqVk>

중간공유 발표 : <http://youtu.be/8SHiW9EqiMU>

서비스 소개

쓰면 쓸 수록 내성이 생긴다는 항생제. 적게 쓰는 병원을 가고 싶다면? 어느 병원이 항생제와 주사제를 적게 쓰고 많이 쓰는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 지도에 보여주는 서비스. 우샤히디를 이용해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용한 데이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정보, 병원평가 정보(병원 위치정보 + 각 병원의 질병.수술.외래약제등의 평가등급)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API로 제공되지 않아서, 웹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로 생성후 Ushahidi에 삽입. 등록된 병원이 8만개 가량인데, 8만개의 위경도를 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외부에 geocoding 요청시 외부 트래픽도 늘어날 것 같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도까지 들어가서 위치 정보를 가져왔다. 병원의 위치 정보까지만 한번에 가져올 수 있었고, 이 위치 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다른 정보를 찾는데 다른 정보는 각 병원을 검색하고, 그 병원 정보를 하나씩 scraping 해야 가능했다.

결과물 URL : <http://ansim.me/>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시민들이 알면 유익한 의료 정보가 많이 담겨있으나 로데이터 상태로는 한 눈에 보기 어렵웠다. 이를 지도 위에 뿌려 구현한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는 평. 항생제와 주사제 이외에도 서울 내에 위치한 심장제세동기 좌표 등 각종 의료 보건 관련 정보를 추가 중에 있다.

2. 통닭 팀 <Watching You 미아 찾기>

4. '함께찾자'

✓ 컨셉 : 실시간 전단지 (사람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기능

- 사전정보 저장 기능 (EX : 아이 사진, 이름, 나이, 성별 등)
- 실시간 실종 신고 기능
- 주변 사람들에게 실종신고 실시간 Push 알림 기능 및 정보 열람 기능
-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SNS 연동기능

The image shows four screenshots of the iFinder app. 1. Home screen: Shows a grid of missing children photos with labels like '김수현우', '2세 남우' (Kim Suhyeon, 2-year-old boy). 2. Report screen: Shows a photo of a smiling child with the text '아이 정보 보기' (View Child Info) and '밀애마나 홍제 여 1' (Milaemana Hongje, female, 1 year old). 3. Alert screen: Shows a push notification at 16:34 on Monday, September 27, with the text '미아발생, 주위를 둘러봐주세요' (Child found, check your surroundings) and '(김연우, 남, 4세, 13:32) 귀해와 약 100m 거리에서 실종신고되었습니다.' (Child found, male, 4 years old, 13:32) and buttons for '사진보기' (View Photo) and '방가' (Find). 4. Photo screen: Shows a large photo of the same child with the text '아이 찾는 중이에요' (Looking for the child) and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2번지 동아마트' (Gyeonggi Goyang City Ilsanseo-gu Juyeok-dong 22-2 Dong A Mart).

미아, 장애인 등을 다수의 협업에 의해서 실시간내에 찾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공공기관 - 경찰청의 실종자 DB와 개인의 자발적 DB를 연동

관련 문서 : <http://bit.ly/codenamu2012-team2>

초기아이디어발표 : <http://youtu.be/m5K5POma-Zs>

중간 공유 발표 동영상 : <http://youtu.be/d9WP7NeopGQ>

서비스 소개

미아나 장애인을 다수의 협업으로 찾을 수 있게 돋는 실시간 앱서비스. 경찰청 실종자 DB와 개인의 자발적 DB를 연동해 보다 효과적으로 미아를 찾는 원리.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올리는 정보와 찾는 사람들이 올리는 정보. 없는 지역을 클리어해가면서 반경을 좁히는 컨셉.

이용한 데이터

경찰청의 실종자 DB, 개인의 자발적 DB 참여.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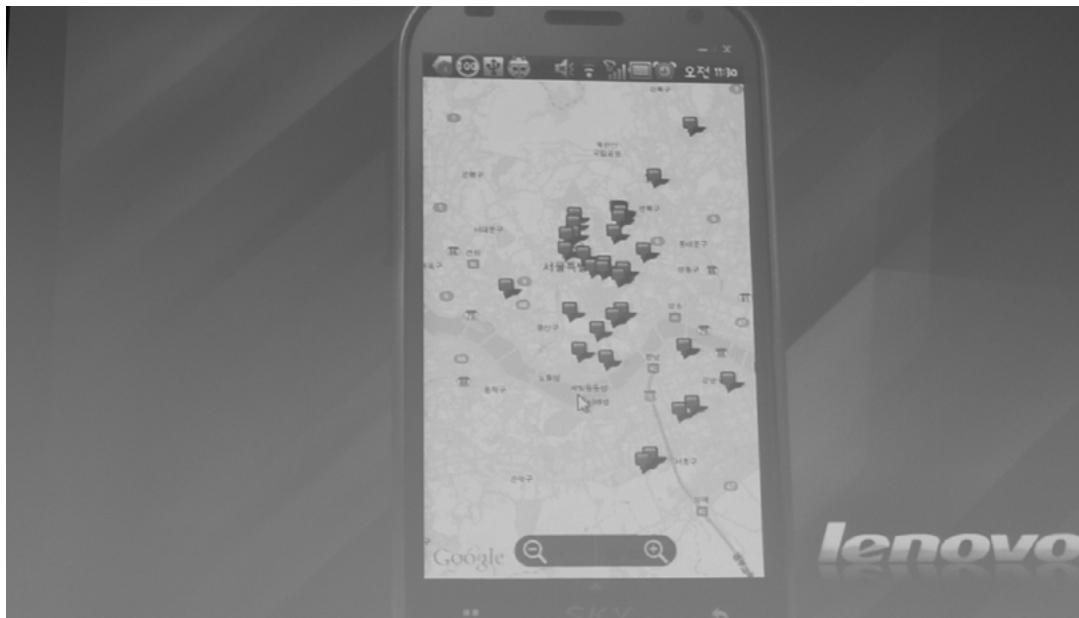
경찰청 실종자 DB와 실시간 연동 필요.

결과물 URL : 없음

평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다수의 협업으로 잃어버린 물건이나 집 나간 반려동물 등을 찾던 당시의 배경에 미아 찾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좋았다.

3. 빨간소 팀 <Here, 여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공연 정보를 지도를 이용하여 보여주고자 함.

문화포털에서 제공하는 공연정보 데이터를 활용, 지역, 기간, GPS 정보, 공연 이름, 공연 내용 등을 제공받아 구글 MAP API에 적용

관련문서 : <http://bit.ly/codenamu2012-team3>

초기아이디어발표 : <http://youtu.be/GGT5HWeG9R0>

중간공유 발표동영상 : <http://youtu.be/elur3VDVdpo>

서비스 소개

문화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연 정보 데이터를 활용, 지역, 기간, GPS 정보, 공연 이름, 공연 내용 등을 제공 받아 구글맵 API에 뿌려준다. 사용자가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구글맵 위에 표시해 제공한다.

이용한 데이터

문화포털 공연정보 데이터 <http://www.culture.go.kr/guide/apiExam.do>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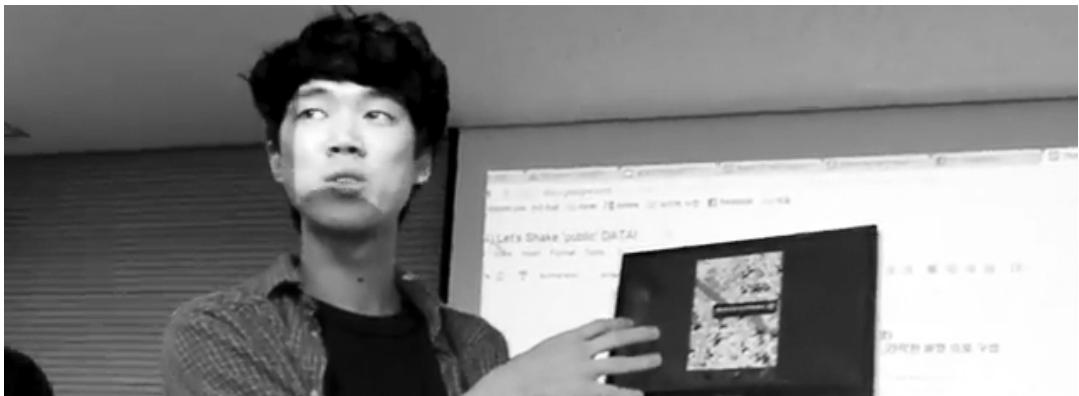
Open API의 결과가 XML인 경우, 수신 데이터 형식이 JSON과 달리 cross domain call로 되어 진행이 안 되었다.

결과물 URL : 없음

평가

보다 나은 삶의 질에는 풍성한 문화 활동이 필수. 주말에 할 일이 없어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 양질의 전시나 공연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기획 의도가 신선했다. 요즘 개인과 기획자 등이 직접 공연 DB를 업데이트 하는 인디스트리트(indistreet.com) 등의 서비스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니, 매우 유효한 직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4. 범죄의 흔적팀 <범죄의 흔적>



대검찰청 범죄정보와 서울시 화장실 정보를 이용. 주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을 때 해당 화장실의 만족도와 주변 범죄 현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하고, 사용자의 리뷰와 주변 범죄 현황을 통해 시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관련문서 : <http://bit.ly/codenamu2012-team4>

초기아이디어 발표 : <http://youtu.be/S5go5j3dbbs> / <http://youtu.be/Wof6qdMQuOY>

중간공유 발표 영상 : <http://youtu.be/ORLCubXJLlw>

서비스 소개

가까운 화장실을 100군데 정도 보여주고, 해당 화장실 주변에서 일어난 범죄를 1부터 5의 위험도로 구분해 지도에 보여주는 서비스.

이용한 데이터

대검찰청 범죄분석정보(주변 발생 범죄 세부 정보, 범죄 발생 유형 별 건수 조회), 서울시 화장실 공공정보 POI 정보(주변 화장실 위치 정보, (가정된 API) 범죄 발생 위치 정보, 범죄유형/발생위치좌표를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필요로하는 API가 제공되지 않음(제공된다는 가정하에 작성됨, 차후 대검찰청 김후곤 정보통신과장님을 통한 통계에 대한 API 구성 요청 예정)

결과물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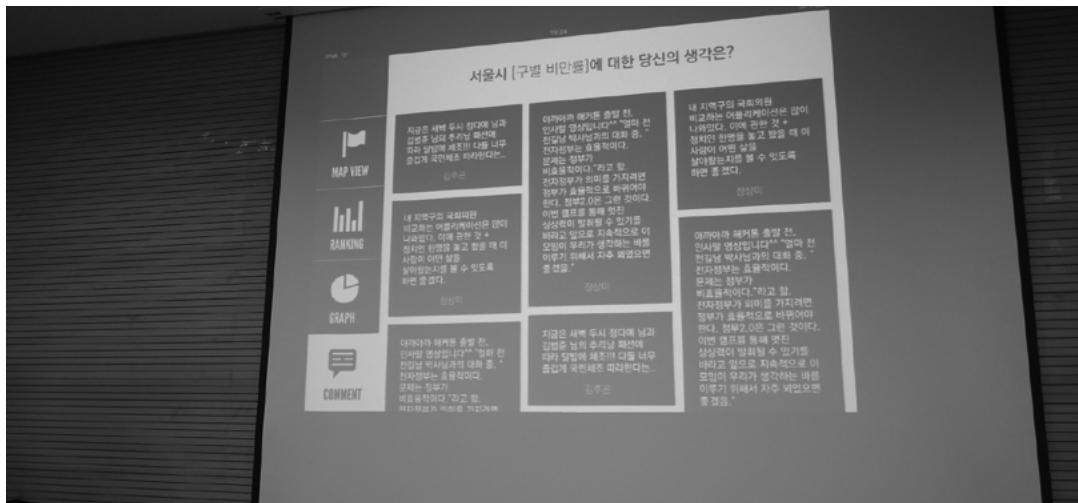
- <http://clime.poochi.kr/clime/list?lat=37.510&lon=127.0221&radius=50000&limit=100>
- <http://clime.poochi.kr/toilet/list?lat=37.510&lon=127.0221&radius=50000&limit=100>
- <http://clime.poochi.kr/clime/stat?lat=37.510&lon=127.0221&radius=50000>
- <http://clime.poochi.kr/toiletComment.php?toiletIdx=1>
- <http://clime.poochi.kr/climeInfo.php?climeIdx=1>

• 현재 서버 이전 필요

평가

공공 화장실 근처 범죄율을 보여준다는 주제가, 흉악 범죄 뉴스 등으로 밤늦은 귀갓길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당시의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5. Happy Catalyst팀 <How Seoul happy, Seoul infographics design>



서울시민에 대한 지역별 통계 데이터,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구별로 차이가 나는 지역 비교 데이터를 이용. 이러한 데이터를 인포그래픽화하여 서울시민의 행복도나 생활만족도를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

관련문서: <http://bit.ly/codenamu2012-team5>

초기아이디어발표 : <http://youtu.be/xYWFJb-2L3w>

중간공유 발표동영상 : <http://youtu.be/51sd0FCUEPU>

서비스 소개

하루 한 번 일간지처럼 서울시 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한다. 딱딱한 데이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 이슈 메이킹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한 데이터

서울시민에 대한 지역별 통계 데이터,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구별로 차이가 나는 지역 비교 데이터. 말 그대로 흥미 있는 각종 데이터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없다.

결과물 URL

발표자료 <http://thepath.linuxstudy.pe.kr/etc/CODECAMP2012-TEAM5-PT.pdf>

평가

좋은 데이터를 뽑아 비주얼리제이션 해서 배달하는 미디어의 역할. 현재 코드나무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가 비슷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다.

6. living-smile팀 <e-smile>

	A	B	C
16	자전거	자전거관공시설공간	
17		자전거 공간 도로정보	
18	생태공원	길수말	
19	강수량	거울설 펌관기온	
20	거울설 펌관기온	가율설 펌관기온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15
21	가율설 펌관기온	여율설 펌관기온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14
22	여율설 펌관기온	불설 펌관기온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259
23	불설 펌관기온	언율관측기온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62
24	언율관측기온_2008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61
25	자전거구역 TCR 환산량_2008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60
26	자전거구역 사용량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59
27	행정동별 가스 사용량_2008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58
28	행정동별 전력사용량_2008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42
29	간접분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38
30	상수도 사용량	강애민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34
31	정례회	경공체육시설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26
32	경공체육시설	미트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1123
33	시민마을회	가격오발인점업소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1115
34	기획모임인정인소	전동서점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1112
35	한류사업장정보	도의회복지시설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1083
36	도민복지시설	밀원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602
37	밀원	경찰서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662
38	감찰서	소방서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700
39	소방서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699
		승강편의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공공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시각화 해서 보여줌으로써 살기 좋은 장소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관련문서 : <http://bit.ly/codenamu2012-team6>

초기아이디어 발표 : <http://youtu.be/aSY5buWaBmY>

중간공유 발표 동영상 : <http://youtu.be/uvOrdebrcew>

서비스 소개

내가 사는 곳에서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좋은 공공시설이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리빙 스마일’ 지표가 되는 지수를 ‘리빙 스마일 지수’라고 이름 붙였다.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 구현 착수에 앞서 많은 데이터를 리서치해서 찾아둔 상태였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ccc?key=0AvdmLVv_QnIzdE04THBjWnlJUnVQa0JlVIZ5YTk5Q2c#gid=0 이걸 다 쓰려고 했지만 시간 상 그려진 못했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했다.

- 작은 도서관 정보 :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21>
- 전통시장 :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21>
- 공공체육시설 정보 :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21>
- 녹지대 정보 : <http://data.seoul.go.kr/metaview.jsp?id=OA-321>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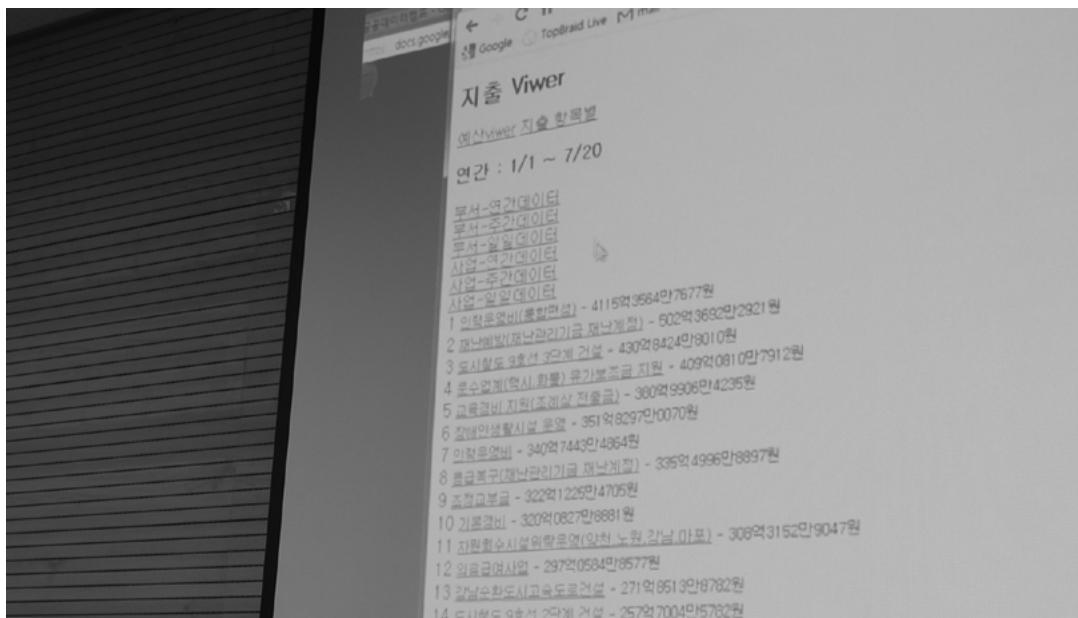
문제점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없다.

결과물 URL : 없음

평가

기준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려 한 점이 고무적이다. 이미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차원의 이용 피드백이 될 수 있어서 좋을 듯 하다.

7. 파수꾼팀 <지켜보고 있다>



서울특별시 클릭 재정 재정운영 집행 현황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일매일 서울시의 예산집행 상황을 여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 |
|--|
| 관련문서 : http://bit.ly/codenamu2012-team7 |
| 초기아이디어 발표 : http://youtu.be/_OW0CR7CVwE |
| 중간공유 발표동영상 : http://youtu.be/_dpBzikyaVQ |

서비스 소개

서울특별시의 사업 예산과 재정 집행 내역을 매일 공개하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가 쉽지는 않다. 이 데이터를 모바일에서 깔끔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한 데이터

'서울특별시 클린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 상의 재정 집행 내역, 서울시의 사업 예산, 예산 집행 내역. 클린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에 업로드된 정보에 기반. 1일 단위로 데이터 짍게.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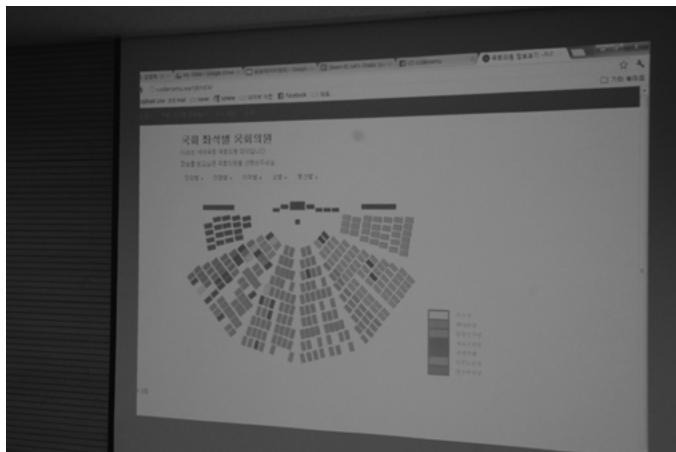
API로 제공하지 않아서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를 직접 크롤링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디자인을 포함한 최종 완성은 캠프 후에나 가능했다.

결과물 URL : <http://gilstar.com/watcher>(현재 서버 이전 필요)

평가

박원순 서울시장 선출 이후 시정부 투명성을 강조하던 것에 적절한 민간의 대응이었다는 평가. 덕분에 캠프 1위의 영광을 안았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도 가졌다.

8. 마스터-슬레이브팀 <국회는 지금>



선관위에서 크롤링한 국회의원 선거 18대 당선자 데이터와 다음 사진검색API와 네이버 뉴스검색 API를 이용. 국회 좌석 배치도를 이용한 비쥬얼작업과 국회의원들의 타임라인 보기

관련문서 : <http://bit.ly/codenamu2012-team8>

초기아이디어 발표 : <http://youtu.be/aMfpm3-hpnk>

중간공유발표동영상 : <http://youtu.be/NTCuud5rtmY>

서비스 소개

국회 좌석에 따라 국회의원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참고 : 18대 국회 기준이라 지금은 맞지 않는다)

이용한 데이터

중앙선관위에서 크롤링한 국회의원 선거 18대 당선자 데이터, 다음 Open API 사진검색 API, Naver Open API 뉴스 검색 API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 페이지는 제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형식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는데, 국회 사이트(<http://assembly.go.kr>)에서 올리는 국회 관련 데이터 중 의안 원문이나 회의록 등은 HWP나 PDF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TXT, XML, HTML 등 기계적으로 처리 가능한 포맷이면 더 좋을 것이다.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구조적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웹 상으로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Open API 또는 CSV와 같은 공개포맷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결과물 URL : <http://labs.popong.com/codenamu/>(소스코드: <http://github.com/e9t/codenamu-2013>)

평가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가 있지만, 데이터가 개방 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국회 내 비게이터’에서는 정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가져다 활용했다는 데서 정부2.0의 기본 정신인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이뤄낸 의미가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 렛츠

개요

일시 : 2013년 7월 6일(토)
장소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프로그램

14:00 ~ 14:15	행사 소개(LETS의 의미, 목적)
14:15 ~ 15:00	자기 소개
15:00 ~ 15:15	배움 거래 장터 진행 - 배우고 싶은 것,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준비된 벽에 적어서 모으기, 적힌 내용을 보고 배울 주제에 따라 팀을 조직
15:15 ~ 15:30	포스트잇 보고 관심사별로 팀 구성 - 개발자, 공무원, 시민, 기타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비율로 섞일 수 있게 구성
15:30 ~ 17:20	배움과 노하우 공유의 시간 - 아이디어를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 효율적이며 다양한 시각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
17:20 ~ 17:50	LETS 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
17:50 ~ 18:00	마무리

함께 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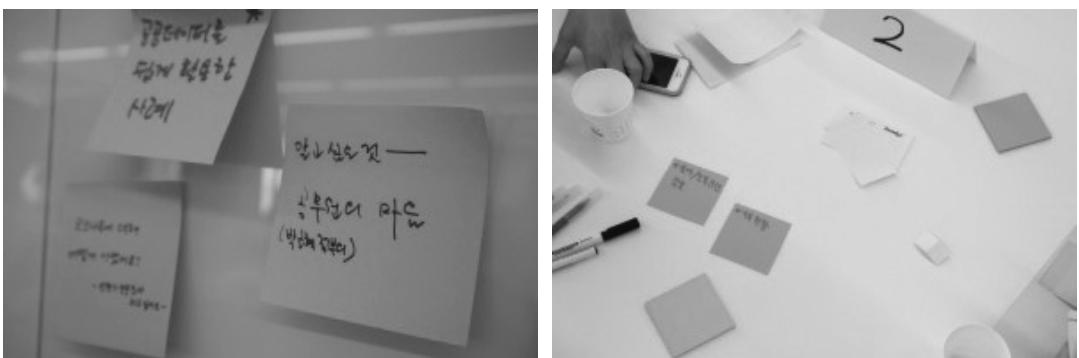
강신범	권기택	권난실	권준호	김도신	김슬	김아령	김지해	김하림	김한기
박민영	박성진	변희제	서민원	성기현	시다솜	신승희	안지윤	양석원	엄희선
오원석	오정환	윤병국	윤선영	윤종수	윤지월	이건임	이세리	이진순	이희원
임영제	장상미	전민제	정다예	정원모	제니퍼	조아신	조향권	최영훈	최윤원
최정열	홍영택	황성준							

현/장/스/케/치

코드나무가 주최하고 Creative Commons Kore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D.CAMP, 서울시, The Change 가 함께한 제 2회 Let's Shake 공공데이터 렛츠는 7월 6일 역삼동 D.CAMP에서 열렸습니다. 50여명이 함께 공공데이터에 대해 서로 배우고,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렛츠를 위해 D.CAMP에 모인 참가자들.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이내 6명씩 1조를 이루어 인사를 나누며 어색함을 뒤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공데이터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말로도 나누어보고, 메모지에 적어서 벽에 붙여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또는 나는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이들은 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션 1에서는 우리가 벽에 붙인 아이디어들을 분류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모지들을 모아 각자의 관심에 따라 테이블을 재구성 해봤어요. 일부 테이블에 구성원들의 분야가 몰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테이블에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테이블마다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메모지에 그려진 컨셉을 아이디어로 발전시켰어요. 한 시간이 조금 못되는 세션 동안 참가자들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각자가 그리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서로와 공유했어요.

세션 1에서 나온 이야기들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 정리공유 : 엄희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는 버스노선과 배차 시간을 알 수 있는 서울버스 앱, 기상청 정보를 받아서 내보내주는 날씨 앱, 미국의 경우 범죄 데이터를 공개, 국내에서는 공개하려고 했더니 집값하락 등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발이. 코드나무 캠프에서 나온 것으로는 병원별 항생제 사용정도를 보여주는 안심병원도... 공공정보+지리정보+시각화=광주에서 범죄율을 공개해서 지역별로 보여주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CCTV 설치여부 등 정책결정하는 사례.

공공데이터는 무엇이고 범위는 무엇이냐. 흐름은 어떤가 / 정리공유 : 이건임

데이터와 컨텐츠의 차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가 정부였을때 공공데이터. 정부의 투명성, 빅데이터.. 접근방식에 따라 달라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을 위해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있지만,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공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공공데이터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있을 거라는 염려. 최근까지 끊이지 않는 논의는 공공데이터가 공개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실제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형태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자의 피드백이 많이 필요함. 정부와民間이 함께 참여하는 리뷰 사이트 필요.

공공데이터 검증, 리뷰사이트 / 정리공유 : 홍영택

공공정보 API 제공하는 정부에 피드백 제공하는 것 등 할 역할은 많이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커뮤니티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가의 문제. 페이스북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나와도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쌓아놓기가 어렵다. 그럼 네이버 카페를 만들거나 사이트를 만들거나. 페이스북은 빠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두고, 실제 데이터 리뷰는 외부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 진행. 정부 사이트 보면 개발자 커뮤니티가 다 있다. 정보 형태의 문제든지 의견 제공하는 공간이 있는데 로그인부터가 어렵다.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코드나무 사이트에 ‘정부에게 한마디’ 코너 만들어보면 어떤가. 이렇게 해봐야 안 읽는다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내보내보자.



공무원과 어떻게 친해질까 / 정리공유 : 변화제

초반 대화로는 친해질 방법이 잘 안 찾아졌다. 그래서 공무원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해봄. 공무원은 모든 것을 건수, 숫자로 파악. 민원을 무서워함.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정확히 관련성 없으면 손대지 않음. 고위공무원에게 줄을 타는 경향. 공무원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무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싶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 인센티브는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 다산콜센터는 아는 정보를 나는 왜 모르지? 지금 내가 걷는 보도블럭은 얼마인지?

서울시내 신호등 많은데 쓸데없이 많다고 생각될 때 질문을 하면 그냥 필요하다 말고 무슨 무슨 정책 때문에 필요하다 상세하게 듣고싶다. 공무원이 자기 하는 일을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고 잘 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고민을 공개하면民間에서 기여를 하고 협업할 수 있을수도. 공무원과 친해지는 방법은, 시민의 ‘맛’을 좀 보여주는 것. 시민이 맛있으면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 정리공유 : 이장

- 1) 공영주차장 정보는 공개되어 있는데,民間 주차장 쪽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정보 비대칭.民間 DB 가 공공화되면 좋겠다. 안되면 시민참여로 만들어보는 것도. 2) 당시 약국이나 병원 정보가 공개되고는 있는데 업데이트가 늦어서 막상 제때 활용하기 어려울 때도. 3) 작년에는 도심에 맷돼지가 출몰하곤 했고, 로드킬도 많이 발생한다. 야생동물 관련한 이 정보가 집적되고는 있다는데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4) 생활쓰레기 - 건전지, 옷 같은 것 수거함 위치 정보가 공유되면 좋겠다. 5) 국민의견을 실시간 반영하는 플랫폼 있으면. 6) 음주측정 장소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웃음^^) 7) 야생동물로 인한 경작지 피해 정보 8) 시위 정보 - 시위 진압 경찰은 어디 소속인지, 시위하는 단체는 어떤 곳인지, 폭력을 당한 시민이 채증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세션 2에서는 세션 1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이너는 이용에 최적화된 UI의 구성을, 기자는 어떤 데이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지를, 개발자는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무원은 이용과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들을 확인해주며 각자의 전문분야와 관심을 토대로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슈가 정부나 개발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참여함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션2에서 나온 이야기들

생활 / 정리공유: 이장

화장실 공공정보, 안쓰는 물건 공유 정보, 재활용쓰레기 수거일, 지하철역 자전거 타이어 바람넣는 기기 위치, 자전거 주차장/수리장소, 보건서비스 지원 정보, 쓰레기봉투 판매처 등등 이런 정보가 한 곳에 모여있고, 없는 정보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참여에 대한 보상은 마일리지로 활용.

의료, 식품 / 정리공유: 권준호

아플때 주변 약국 찾기 힘들더라. 119에 전화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고, 응급실에 가서도 결국은 별 처치를 잘 못 받음. 소아과 전문병원이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국 같은 곳을 알려주는 앱 있으면 좋겠다. 학교급식 정보 공개. 식품 원산지, 재료 정보 공개하듯 학교급식도 공개해야. 누가? 학생들이 오늘의 식단 평가하는 사이트. 네이버카페에 각 학교 식단정보 있는 카페 있다고 함. 내가 다녔던 병원,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보기 힘든데 잘 정리되어 있는 앱이나 사이트 있으면 좋겠다.

교통 / 정리공유: 오정환

차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관련 부분도 이야기 나눔. 보행자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지도나 네비 앱을 쓰는데 잘 맞지 않는다. 증강현실 적용된 보행자를 위한 지도 앱이 있으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없는 것 같다. 4대강 자전거 인증센터가 있는데 스템프도 받고 하는데 시스템이 구식. 친구가 갔던 곳, 내가 가본 곳 그런 걸 볼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주차장은 공영, 사설, 백화점/마트 등이 있는데 그밖에 에어비앤비처럼 주차장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또는 공간 활용 상황을 보기 위해서 위성데이터 분석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업데이트 해보면, 최근 이 지역은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볼 수 있도록.

세금, 정치 / 정리공유: 최영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 관련 앱도 몇가지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 피드백을 통해 정보신뢰성 높일 필요 있다. 공무원 출장처 정보 공유해서 세금 사용처 파악. 연금 현황. 시민들의 이야기나 정보도 보여줄 수 있는 DB가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문제나 신뢰도의 문제 역시 있다.

범죄 / 정리공유: 임영제

성범죄 알리미의 경우 법적으로 사이트에 가서 보는 것 외에 다른 곳에 가져가는 건 제한되어 있다고 함. 예방과 재미를 목표로 제작. 범죄율은 보통 강간, 강도, 살인 등 4대 범죄정보만 나오는데 이 정보 이외에 자잘한 범죄정보가 빠져서 범죄율이 왜곡되는 문제. 범주별 범죄율, 시간대별 범죄율, 주변 정보, CCTV 연계. 경찰 순찰 시간과 횟수가 정해져있는데 그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재미요소 - 경찰이 조폭을 관리하는데, 이 지역은 어느 파가 최근에 싸웠고, 이겼고, 전적이 어떻고 그런 정보들. 바바리맨이 특정 여고나 특정 골목에 주로 출몰한다는데 그런 유형과 특징 같은 거 나오면 재밌을듯. 현실적으로는 부산 경찰청 트위터가 재밌게 잘 한다는데 오늘의 범죄정보나 예방법 같은 거 올려주는데 그런걸 아카이브하는 방식도. 관심범죄를 설정해서 그 분야 정보만 주로 찾아보는 것.

교육 / 정리공유: 조항권

주민센터 교육 프로그램이 각 구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사는 곳과 직장이 다른데 각각 찾아봐야 함. 체육, 예술 등 영역별로도 따로 찾아봐야 함. 사는 곳과 원하는 분야 입력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적어도 시 정도 수준으로 묶어주면 어떨까. 접근하고 검색하기 쉽도록. 개발자가 생각하는 건 현실적인 한계에 묶일 때가 많으니 일반 시민도 코딩을 배워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 최근 핫한 어린이집 정보의 경우, 현재 대기인원은 뜯다고 하던데 대기시간도 떠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이외에 사설 쪽도 정보를 공유해주면 좋겠다. 교사 당 원생 수도 공유되면 좋겠다.

기타 / 정리공유: 박성진

정보를 얻어오는 것만 아니라 직접 생성하는 쪽으로 이야기. 공공데이터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실제 데이터 존재 유무나 활용성을 알기 어렵다. 공공데이터 QnA 공간 있으면. 직접 주변의 공공시설물 민원을 공유하는 DIYcity. 야생동물 관련 - 도심에서 1km 안에서 1년에 비둘기 100마리 정도가 유리창/방음벽에 부딪쳐 죽는다고. 이런 정보를 쌓아보면 취약한 지점이 드러나서 베드세이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방지할 수 있음. 인공새집을 관심있는 시민에게 분양하고 관찰기록을 공유하는 플랫폼 제공. 이 자료를 분석하면 관련 정책도 마련 가능. 공공데이터 저작권 - 데이터가 공공의 것이냐 정부 또는 용역업체의 것이냐. 결론은 없지만 서로 인식과 양해가 필요.

여행 / 정리공유

에어비앤비가 있더라. 끝^^;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은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그 가능성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깨닫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함께 나눴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복습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 묻고 발견한 뒷풀이 시간은 배움과 익힘의 나눔을 목표로 하는 렛츠의 ‘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공데이터에 대해 우리의 질문은 정부만을 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렛츠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역할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장을 구체화하고 채워나가는 것은 정부 뿐 아니라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국내 공공데이터 환경 구상은 이 날 나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조금은 구체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잖은 밑그림에 가깝습니다. 이 밑그림을 토대로 세부적인 요소를 채워나가고 색깔을 입힘으로 공공데이터라는 거대한 풍경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배열하고 UX를 구성할 것인지, 어떤 모습이 최종 소비자에게 최적의 효용을 가져올지… 이러한 고민들이, 일주일 후 열린 공공데이터 캠프로 이어졌습니다.

공공데이터 렛츠 전체 기록 보기 : <http://bit.ly/codenamu2013>

공공데이터 렛츠 사진 / 영상 모음 : <http://flic.kr/s/aHsjGCLWBP> / <https://vimeo.com/ckorea>

참/가/자/회/고

렛츠 현장에서 참가자 여러분이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신 의견을 모두 모았습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하고싶은 일 & 알고싶은 것

- 2년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나?
- data journalism handbook 번역 - 1
- IT용어사전 - IT문화를 공무원님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용어사전 만들어 보고 싶어요
- 거의 필요없는데 찾아면 없는 정보는?
- 고액 체납자 정보를 지도에 뿌릴 수 없을까
- 공공데이터 + Open API + Open source sw + 매쉬업 개발 사례 - 1
- 공공데이터 공개와 사생활 침해 - 1
- 공공데이터 공개의 장, 단점
- 공공데이터 리뷰/검증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 4
- 공공데이터 목록
-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 공공데이터가 뭔지 알고 싶은 학생들과 함께 <열린 정부 만들기> 책 스터디 하기
- 공공데이터라는 범위 내에 포착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
-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할 수 있는 tool
-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한 사례 - 2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탐사보도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2
-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을까
- 공공데이터의 생산자는 누구인가, 누구나 될수있나? - 1
- 공공데이터의 정의 또는 범위는?(공공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공공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 공공이 공익일까
- 공무원과 시민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 공무원과 친해지고 싶어요
- 공영주차장 + 시민이 쉽게 활용 가능한 주차장 위치 - 1
- 공유데이터만 공유해야할까
- 공직자 재산 증가율 2013
- 과연 시민들의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을까요
- 구두수선소 위치를 쉽게 찾고 싶어요
- 구두수선소 정보지도에 표시하기
- 국회의원(본)회의(실시간) 출석현황
- 기부 현황 통계
- 기억력이 좋아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기업 공개 정보(FSS+NICE) 연동
- 기차 안에서 하는 공공데이터 캠프해보고 싶어요
- 내 관심 영역에 쓰이는 세금을 조회할 수 없을까 - 5

- 내가 타고있는 버스 기사의 성함 - 친절한 기사를 칭찬하고 싶다
- 노.는.땅
- 다 쓴 건전지, 형광등 수거함 위치 - 2
-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법 / 데이터의 신뢰, 갱신 주기
- 도서관 문화행사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없을까?
- 뚜벅이 커플을 위한 대중교통 - 공연시간-맞집-돌아오는 교통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원스톱 데이트 코스 서비스 - 2
- 백화점/공공기관 화장실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분포
- 벼리기도 그렇고 입기도 그런 옷장 옷들
- 범죄자는 타고 나는 건가요, 만들어지는 건가요
- 법령 개정 정보 신/구 비교
- 부동산 가격 변동 추세 분석 데이터
- 사실 알고보면 이미 있는 것도 많다
- 사용하지 않는 아동용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 생활 쓰레기의 유용한 활용법을 알고 싶다
- 서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에서는 어플을 통한 공중 화장실 위치 서비스 서비스는 하지 않나요? 제 친구는 120에서 묻더니 찾아 가던데 - 3
- 소셜미디어 FOR 공무원 매뉴얼 작성
- 스마트폰 위치 공개 가능한가
- 시내버스 연비 인포그래픽
- 실시간 에너지 소비
-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가격, 빈공간, 무료) - 5
- 심야에 택시가 많은 곳 - 2
- 아파트 별 관리비 평균
- 알고 싶은 것 -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의 마음
- 어떤 공공데이터가 개발자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전달되어야 좋을지?
- 왜 모텔 소개 할인 어플은 많은데 짐질방이나 온천 소개 어플은 없나요
- 육아/보육 관련 정보를 모아서 활용
- 음식 솜씨 좋은 동네 아줌마
- 이동 도서관 이동 상황
- 인근 지역 재활용 센터(중고품거래소)의 존재 여부 및 재고 정보 등
- 자전거 대여소 정보공유 - 2
-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짜/자전거 바퀴 공기 주입/자전거 주차장 및 수리/보건소 예방접종/건강검진 장소/쓰레기 배출 날짜/쓰레기 봉지 판매소/수거함/구두수선방/공공화장실/안 쓰는 물건 활용/장난감/마일리지를 통한 시민참여
- 재활용품이 재활용 되는 과정 - 1
- 전국 자전거도로 지도(노선별) - 출근 or 여행을 위해 - 1
- 정보공개청구 대상과 공개된 공공데이터 매칭을
- 정부 데이터들의 저작권 현황 - 1
- 정부에 공공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개발자가 있나요
- 좌표계 변환 어떻게 하시나요?
- 주변 맞집 추천

- 주차위반률이 높은 지역 파악(구체적인 거리(주소) 제공) - 1
- 지구대, 파출소 위치안내는 지도를 실행시키고 찾아야 하는가? 왜?
- 지도, 상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증강현실 앱을 만든다
- 지역 단위 수도 / 전기 사용량
- 지역별 빈곤 가구 수 + 지역별 기부금 총액
- 지하철 역사 화장실 찾기 게이트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 1
- 커뮤니티 맵핑이 궁금해요
- 코드나무에 대해 어떻게 아셨어요? - 언젠가 설문조사 하고 싶어요
- 탄소가스 배출 현황이랑 에너지 사용 관련된 무언가
- 해보고 싶은 것 - 야근 방지 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 현 옷 수거함 위치 - 1

렛츠모임에서 아쉬운 점

- 개발자가 없어서 구현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했다. 시간이 짧다. 사전 교류가 있었으면...
- 공공데이터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거 것 같아요
-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괄 프리젠테이션을 서두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전정보>(정의, 현황, 관계법령, 의미 등등)
-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려니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음
-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반적 정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희망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존재 확인이 필요
-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았을 듯(참가자들이 잘 모름)
- 공공데이터의 '활용 예' 나 '정의' '범위' 등이 더 명확했으면....(아직은 시기 상조라 생각)
-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 구체적인 솔루션보다 일반론 많음. 구분 방법 있으면 좋을 듯
- 기초적인... 작년과 반복된... 이야기들을 되풀이 하는 시간을 줄여..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 냉방 추워요. 에너지 절약
- 너무 늦게 왔습니다
- 늘 시간이 부족한듯
- 다음주 행사를 위한 정리는 잘 안된듯
- 분위기가 루즈하게 흘러갔음
- 시간이 넉넉해서 의견 교환 시간이 많았으면...
- 시간이 짧다
- 실제 있는 데이터로 2차 가공에 대한 토의를 나눌 수 없어서 아쉽다
- 실제 정보 생산의 주체와 데이터를 가공/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찾기가 어려웠다
- 앞시간에(1time) 토의했던 부분이 2time에 잘 연결이 안된게 아쉽다. 밥부터 먹고 시작했으면 좀 서로 친해지지 않았을까? ㅎ ㅎ
- 여러가지에 관심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 의제 설정에 시간이 걸려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한 점...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
-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좋았으나, 짧은 시간에 정리되기에는 뭔가 정리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 좀더 다양화 전문분야의 분들이 참여 했으면 합니다. with 마이크
- 처음 공공데이터에 대해 접하는 입장에서 행사 시작에 앞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정의를 먼저 간단한 강의 형태로 알려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이님의 설명을 듣고야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는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 초반에 주제 잡기가 어려웠던거 같다. 공공데이터를 알고자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충분히 배분된 상황에서 렛츠 진행을 해야할듯
- 토론과 아이디어를 낸 다해도 정부에서 데이터 공개를 안하면 상상에 불과할 듯 합니다.
- 포스트잇에 써진 내용들을 화면에 크게 보여주심 좋겠어요^__^ 눈이 안 좋아여ㅠㅠ
- 행사 전반부에 “공공 정보의 정의와 활용의 필요성”, “활용사례” 등이 아주 짤막하게 전체를 대상으로 briefing 되었으면 좋았겠어요. 그 뒤에 idea모으면 더 많은게 나오지 않았을까...
- 현실적인 Producing, Managing 문제에 대한 토론도 필요
-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
- 좀더 빠른 페이스로 진행이 되어도 될듯 싶다

렛츠모임에서 좋았던 점

-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자 맛있어요
- 공공데이터를 놓고 다양한 니즈와 아이디어가 있음을 알게됨.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생각을 갖게됨
- 공공데이터에 관해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되고 좀더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되었음
-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보 공유기화, 다양한 의견 교환
-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새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음
-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점
-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좋았음
-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 다양한 관심과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brainstorming을 하니 신선한 idea가 많이 나오네요. 재미있었어요!
-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생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음
-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음
-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었음
- 다양한 이야기 즐거운 분위기
- 대학(원)에서 이런 자유로운 토의/토론 잘 안하는데 새로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토의에 도움(이끌어 가는데) 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토론을 통해 담재력을 끄집어 낼 수 있으며, 개발에도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느낌
- 모두 자유로운 대화. 열린 idea. 친근한 분위기. 무궁무진한 주제
- 부담없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간식도 많았음....^^)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게 좋았구요,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도 갖게 될거 같습니다.
- 서로 각기 다른 의견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 토론하고 나눌 수(생각) 있어서 이런 모임 좋아요
- 어떠한 한정된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반영되어 유동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점(논의의 다양성/확장성)
- 여러 사람들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역시 모이니까 얻는게 많네요
- 조 단위가 랜덤이라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분이었어요 ^__^
- 집단이 모이면 많은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모인다는 것
-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포스트잇 사용 좋아요. 관심사별 1,2차 토론 좋아요. 다과와 치킨, 피자 감사
-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가능
- 시간이 정말 금방 흘러가 버리네요. 즐거웠습니다



2013 공공데이터 캠프

개요

일시 : 2013년 7월 12일(금) ~ 13일(토)

장소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인원 : 50명

프로그램

첫째날(12일)

19:00 ~ 20:30

저녁 식사 / 아이디어 브레인 스토밍

20:30 ~ 21:00

아이디어 발표

21:00 ~ 21:20

팀 구성 / 6 개팀

21:20 ~ 계속

[자율 귀가 및 개발] 세부 스펙 및 아이디어 구현

* 공공 정보를 활용한 개발 아이디어 기획 & 공유

* 예상되는 아이디어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오픈 API

: 공공데이터 활용을 도울 수 있는 오픈 라이브러리

: 공공정보를 활용한 공익적인 앱/웹

* 개발 서포터즈 : 해커톤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발자 그룹 운영 (현장 개발경험 10년차 이상으로 3인)

해커톤 특성상 정확한 Tast는 현장에서 결정

둘째날(13일)

09:00 ~ 10:00

[특강] 김창준(애자일 컨설팅 대표) - 애자일 방법론

10:00 ~ 12:00

[개발]

* 개발 서포터즈 : 해커톤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발자 그룹 운영

(현장 개발경험 10년차 이상으로 3인)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3:30	[중간 점검] 팀별로 발표 * 현재까지 개발/구현 진행 사항을 공유. 어떤 개발 언어를 사용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발표하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다.
13:30 ~ 18:30	[개발] * 개발 서포터즈 : 해커톤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발자 그룹 운영 (현장 개발경험 10년차 이상으로 3인)
18:30 ~ 19:00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공유. 우수팀 시상
19:00 ~ 계속	네트워크 파티

함께 하신 분들

캠프에 직접 참여한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강민수, 강신범, 강철, 강혜진, 권준호, 김강민, 김동범, 김슬, 김영숙,김장명, 김지해, 김채연, 김하림, 김한기, 민동국, 박은정, 박현정, 배성훈, 변희제, 송현경, 신희성, 심철환, 오원석, 원준석, 윤병국, 이성규, 이세실, 이웅희, 이해자, 이효섭, 전민제, 조용현, 주덕한, 최석준, 펭도, 흥영택

캠프 기획팀

강현숙, 김성준, 양석원, 오원석, 윤병국, 이세리, 이웅희, 임영제, 장상미, 정다예, 조현길
 / 티셔츠 디자인 : 민세희

후원 및 협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특별시

현/장/스/케/치

우리 삶을 둘러싼 이야기인 공공데이터. 따라서 누구나 연관되어있고, 누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죠. 하지만 국내 공공데이터 환경은 척박해요. 그래서 코드나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공데이터에 대해 고민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려 합니다. 특히 렛츠와 캠프는 다양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한 주 먼저 열린 렛츠의 얘기는 코드나무 홈페이지(<http://codenamu.org/?p=11720>)에서 만날 수 있으니 클릭은 필수! 이틀에 걸친 캠프의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볼까요?



불금에 굳은 날씨에도 승리의 칼퇴를 거머쥔 참가자들! 심지어 1시간씩이나 일찍 오셔서 스텝들이 놀라고 말았죠. 만나기로 약속한 7시쯤에는 빈자리들이 거의 채워졌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살구색 티셔츠를 입은 우리는 멋쩍은 웃음을 띠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제니퍼님과 이장님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캠프가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개발시간이 7시간에 불과하고, 아침 9시에 강의까지 있는 ‘지옥의 스케줄’ 그 자체였죠. 참가자들은 일정표를 보며 걱정과 설렘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고, 어설픈 웃음만 하.하.하… ‘과연 뭘가 만들어 낼 수는 있을까?’ ‘개발은 커녕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감도 안 잡히는데.. 어쩌지?’ 하는 물음을 던질 사이도 없이, 바로 아이디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지난 주 렛츠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정리한 참고자료가 놓여졌고, 메모지와 펜을 든 손은 바삐 움직이며 다양한 생각을 쓸어냈습니다.



1시간 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테이블에서는 2~3개, 많게는 5개 가량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캠프이고, 지난주 렛츠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에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토의가 가능했던 거 같아요. 각 테이블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칠판에 적고,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로 나누어 팀을 짰어요. 각자가 하고 싶은 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팀이 구성되지 않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1인팀으로 꾸려진 깍두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아이디어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런지 모든 팀이 열의가 넘치고 스텝들이 말씀 드리기 전에 벌써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팀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D.CAMP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11시까지 뿐.. 건강한 개발환경을 생각하는 코드나무는 수면권을 보장합니다.

아이디어 제안 내용

팀	참가자	공유내용
1	오원석, 심철환, 김영숙, 김채연, 강민수, 김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한 학교 담당 경찰이나 사회복지사의 정보 공개 2.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공개한 데이터들의 quality를 평가하여 공개 3.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관련된 지표들을 지도와 mapping시켜서 시각화하여 표시 4. <알고 먹을꺼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유전자재조합식품)을 표기한 정보를 각 식품별로 매칭시켜서 표시 - 어디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지
2	권준호, 펑도, 강혜진	<p>불10,000없이 살기 - 이사가고 싶은 구에 대한 정보를 민원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게임을 통해 간단히 체험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다 - 성별, 이름, 나이 2. 이사가고 싶은 지역에 꼭 갖추어져 있었으면 하는 조건 두 가지를 선택한다. 가로정비, 공원녹지, 교통, 청소, 치수방지 중 3. 자신이 선택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관련민원이 적은) 지역을 소개한다. -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지역을 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다.
3	임영제, 송현경, 이효섭, 강철, 정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랬던 그가...” - 정치인이나 유명인이했던 과거 행동이나 발언을 지금과 비교하는 전시용 페이지나 인포그래픽. 좋은 것은 칭찬하고 나쁜 것은 잊지 말자는 목적. 2. 공무원을 위한 친절한 IT용어사전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3. 언론인을 위한 Data Journalism 교과서 번역
4	신희성, 김하림, 민동국, 주덕한, 이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장 기초적이며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2. 공공 화장실, 당직 약국, 구두 수선소 등 꼭 필요하지만 자주 찾지 않는 서비스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세부적 위치정보, 평점 등 상세한 데이터 제공 3.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데이터 순환 - 별점, 부가 혜택, 우수시민 선정 등 4. 공공데이터 활성화 - 시민들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5	강신범, 원준석, 이웅희, 최석준, 윤병국	<p>안전</p> <p><사고다발지역입니다> : 교통사고 + 범죄 우발지역 알리미 / 시민참여 해결 제안 및 반영</p> <p><안전한 골목길> : CCTV 위치정보 + 범죄우발지역 시각화(밝은 빛으로 안전한 지역, 도로를 나타내 안전한 귀갓길 제공) / 노란대문 적용 가구 시각화</p> <p>생활</p> <p><내 물건 어디에요?>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분실물을 통합해 찾아주는 서비스 (기관 + 시민 참여)</p> <p><생활의 달인> - 급하게 필요한 장소 데이터(구두방, 열쇠방, 화장실 등을 한 곳에서 제공)</p> <p><어쩌다 한 번> - 내 주변 공공 기관, 시설물의 운영 정보(운영시간, 요일)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 어쩌다 한 번 있는 전입신고, 운전면허 갱신 등의 담당 부서 연락처 또한 제공</p> <p>보건</p> <p><아파요?> - 보건소, 공공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분석 후 시각화. 전염병 트렌드, 질병 동향 → 병원 진료 지원</p> <p><내 눈 앞의 보건소> - 지역 보건소나 공공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p> <p>기타</p> <p><정부 흥신소> - 정책, 정보 제공 + 참여유도(재미&혜택)</p>

6	강민수, 조용현, 김동범, 배성훈, 이해자	<p>교육형 : 시설정보, 가격, 급식.. 정보 활용</p> <p><귀차니스트를 위한 번개 모임장소> - 토즈, CNN비즈, 민토, 공공시설 등 모임제공 서비스는 많이 생겨났으나 비용과 막상 필요할 때 없다는 머피의 법칙에 의해 체감도는 낮음. 임박한 모임을 위한 신속한 예약 서비스. 실시간 예약 상황이 필요</p> <p><안심 약 정보> - 병원 진료 후 받은 처방전에 대해 어떤 효능의 약인지, 항생제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바로 검색. 개인이 복용한 약정보들을 모아보면 유용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드럭인포 앱, 네이버 약정보 등.. 이미 유익한 앱이 있다</p> <p><어느병원?> - 증세에 맞춰 적합한 병원을 찾는것은 환자의 뭇? 잘못된 분야의 병원으로 가서 엉뚱한 처방을 받거나 여러 처방전을 받기도 한다</p> <p><입시정보> - 학교마다 다양한 입시정보를 모아서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자</p> <p><날씨> - 확률에 따라.. 어느정도 오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면? 부츠를 신어? 어떤 옷입어? 선택에 도움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구현</p> <p><편리한 문헌 검색> - 쉽게 검색, 연관 검색, 원문-번역본 검색</p>
---	-------------------------------	---



이른 아침부터 다시 모인 우리들. 0교시, 김창준씨의 애자일 방법론을 들었어요. 졸린 눈을 비벼가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구현 방법을 배웠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함께한 아침 0교시가 끝나고 다시 개발 모드 돌입! 지난 밤에 잠을 못 주무셨는지 카페인 음료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고, 졸음 가득한 눈에 하품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은 두분! 사무실에 데스크톱을 가져오시고, 심지어 UTP라인이 없어서 손수 무선랜카드를 사오신 분까지!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를 감동시키는 열정! 감사드려요^_____^

중간 발표시간에는 각 팀이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설명하고 함께 고민을 나눴어요. 많은 팀들이 데이터를 구하는 게 힘들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캠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이건만 함께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같은 고민과 같은 생각으로 서로 가까워졌어요. 중간발표 이후, 마지막 스퍼트를 올릴 때에는 오가는 말도 줄었고 비치된 커피와 핫식스도 바닥이 나버렸어요. 어떤 서비스와 앱이 나올지 기대되는 마음에 시간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최종 발표와 우수팀 시상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종 발표 직후, 캠프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투표한 결과. 전력 사용량에 대한 통계 및 인포그래픽 서비스 앱을 구현한 전기나무팀과 CCTV 및 가로등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 서비스를 구현한 독수리5형제팀이 우수 프로젝트로 뽑혔습니다. 수상한 팀 외에도 모든 팀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높은 완성도의 앱/웹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코드나무 캠프에서 구현된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자세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해커톤을 마라톤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IT와 개발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참담하죠. 실제로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들은 이야기 두 가지를 꼽자면…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로부터는 “개발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개발자 분들은 “개발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막연한 얘기만 한다”

렛츠와 캠프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고민과 불평은 고작 코드 몇 줄, 함수 몇 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개발자, 공무원, 일반 시민 모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깜빡이는 형광등, 내 집 앞 골목길, 내가 먹는 두부에 들어간 콩 등의 소소한 삶이었어요. 아마, 함께 하신 모든 이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데이터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전문용어로 인해 그 본질을 놓치고, 서로 간에 벽을 쌓아 멀게 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코드나무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을 깨는 생각의 도끼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결과물 소개

1. GMO, 알고 먹니?



서비스 소개

우리의 먹거리에 GMO가 만연해 있지만 그에 비해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GMO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용한 데이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2012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통계,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식약청(소비자교육교재 中 GMO 국내 수입 · 유통 현황)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 관련 공공데이터가 부족하다.

결과물 URL : <http://data.teamakaiv.com/gmo/>

평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 되지 않은 채 미국의 힘 있는 다국적기업 등을 통해 전세계로 팔려나가는 GMO 식품.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GMO, 알고 먹니?’에서는 대표적인 GMO 식품들의 현재 수입 현황이나 GMO 발견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통해 우리나라에 현재 GMO가 얼마나 퍼져있는지 보여주어 경종을 울린다.

2. 불10000없이 살기



서비스 소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서울 시내, 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한 데이터 : 120시민불편살리미 통계자료를 자치구별 인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서 재산출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 문제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없음.

결과물 URL : <http://bitly.com/bull10000>

평가

짧은 시간 내에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예쁜 디자인과 함께 빛어냈다. 간단한 테스트 형식이라 참여 유도하기에도 좋을듯. 정부2.0 차원에서는 대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규모 있는 프로젝트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소소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대응도 아주 중요하다.

3. 그랬던 그가



서비스 소개

우리는 가히 뉴스의 흥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한 인물이 전국민의 적으로 떠올랐다가도 어느 날 보면 영웅으로 둔갑해있기도 한다. 공인들이 했던 발언 등을 인터넷 신문 옛날 기사를 활용해 타임라인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이용한 데이터 : 인터넷 신문 기사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 공익 목적의 웹앱이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결과물 URL : <http://codenamu2013.appspot.com/>

소스코드 : <http://github.com/e9t/codenamu-201>

평가

캠프 당일날 프레젠테이션한 방송인 강용석의 경우, 정계에 있을 때는 고소 남발 등의 무리수로 구설수에 올랐으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가 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이 크게 달라진 인물의 경우 타임라인을 놓고 발언이나 행동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랬던 그가’는 유권자나 소비자로서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돋는 도구로서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소스를 오픈했으니 추후에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가능성도 크다.

4. Let's Seoul



서비스 소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하지만 매일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 앱으로 굳이 깔지 않고도 모바일 웹으로 확인하자. 가까운 구두수선소, 공공화장실, 주말 당직 약국 등 생활 정보를 보여주는 'Let's Seoul'

이용한 데이터

<http://data.seoul.go.kr/openinf/unifiedsearch.jsp>, 공중화장실 공간정보, 구두수선소 공간정보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실시간 수정되는 데이터가 아님, 현재 누락된 과거의 데이터일 가능성 있음,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화장실 개방 정보 등)가 많음

결과물 URL : 없음

평가

바탕이 되는 기본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용자 참여로 정확도를 높인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이전에 2012년 열렸던 코드잼에서 유사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시간이 부족해 구현까지는 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덜었다.

안전한 골목길



서비스 소개

공공에 개방된 CCTV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에 취약한 대상을 타겟으로 안전한 길 정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앱. 늦은 밤 안전한 귀가길을 보장한다!

이용한 데이터

중구 CCTV 현황정보(지번포함), 중구 편의점 위치 정보, 중구 경찰서 · 파출소 위치 정보, 중구 어린이지킴이 가게 위치 정보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CCTV 데이터 부재(기관에서 관리 중인 현황 자료가 공개되어 활용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위치 정보(좌표값)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가로등과 보안등 정보의 부재(안전한 길 표시를 위한 가로등 보안등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위치정보 값 부재(공개 정보는 위치정보 표현이 가능할 경우 반드시 제공이 필요하다)

결과물 URL : 없음

평가

범죄 예방이냐, 프라이버시 침해냐. 아직도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는 CCTV. 이왕 있는 거, 정말 유익하게 쓰려면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면 어떨까. ‘안전한 골목길’은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될 것이다. 특히, ‘불을 밝혀줘요’ 같은 기능은 해당 길에 안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 한 이용자가 많을수록 길 색깔이 진해지고, 완료 되면 안전길로 등록해 구청에서 안전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과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엄마, 나 어디 가?



서비스 소개

유아원과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2~7세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정보를 이용해 가장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시설을 손쉽게 검색하고 비교해서 찾아주는 서비스

이용한 데이터

<http://www.childcare.go.kr>(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찾기, 보육료, 기타필요경비, 어린이집인가정보 조회 결과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전국 데이터로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며 비교에 필수적인 기본가격, 경비, 시설 위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데이터가 개방되지 않아 웹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과물 URL : 스토리보드 https://docs.google.com/file/d/1zsI5EYOKmHPfK_qUUAYgMu8rwR-V3U1vbGI649TqdDzppU5VKiR4BmwFSIqQP/edit

평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고된 육아의 짐을 함께져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개수는 적기만 하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나 대기를 하고서야 겨우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자녀가 있는 집은 걱정이泰山이다. 적어도 지금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당한 어린이집은 어디가 있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엄마, 나 어디 가?’는 이런 필요에서 만들어졌다. 대기 인원수나 예측 대기 기간 같은 데이터도 공개되어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치는 부모들이 적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전기나무



서비스 소개

여름마다 닥치는 전력난, 정말 가정에서 너무 많은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일까? 가정 부문과 산업 부문의 전기 이용량을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으로 비교하고 주요국에 비해 낮은 산업용 전기 가격으로 수요가 많은 사실을 파헤친 전기나무팀.

이용한 데이터 : 경향신문, 통계청, World Energy Outlook(IEA)

이용 데이터의 문제점

1인당 가정용 소비 전력에 대한 통계 미비,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 사용에 대한 실시간 및 최신 데이터 부재, 서울시 100대 전력 소비 건축물에 대한 위치정보 부재

결과물 URL : 없음

평가

마침 무더운 여름에 열린 공공데이터 캠프. 국가 차원에서 전기를 아껴쓰자는 호소는 많았으나 가정 이용을 줄이자는 말만 많고 압도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산업 부문은 별로 제재하지 않는 것에 시민들이 뿔났다! 데이터에 근거해 전력난의 주범은 가정이 아닌 산업 부문이란 것을 보여줬다. 스토리를 빙어냈으니 아마추어 데이터 저널리즘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시의성이 탁월해 특히 많은 표를 받았고, 1등의 영예를 안았다.

참/가/자/회/고 : 현장설문결과

2012년 캠프

좋았던 점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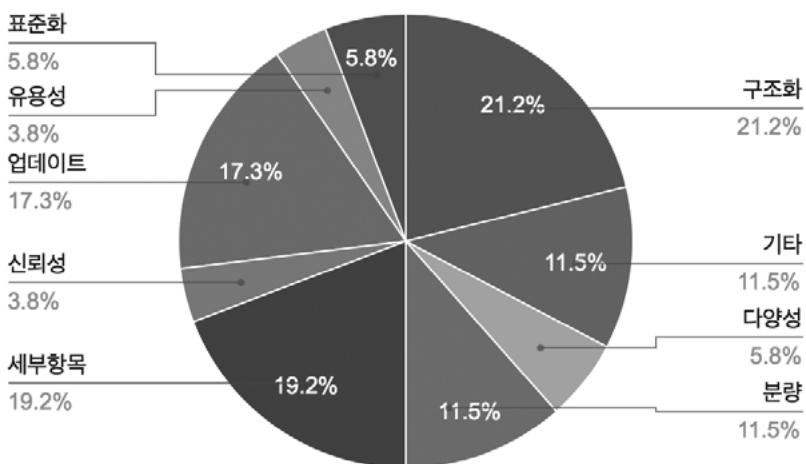
한줄평 – 캠프 자체에 대한 소회 위주로 담았습니다.

- 너무 힘들었지만, 인상 깊었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 프로젝트를 경험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재미있었습니다.
- 짧은 시간에 성공시키지는 못해도 제안과 가능성을 보니 좋구나.
-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번엔 기획자가 아닌 개발자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더 많이 역량을 길러서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 시정도 좋아지고 세상도 좋아지겠죠!
- 더욱 내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 있어지고 싶어요.
- 앱 만들때 살짝 졸리고 디자인 구성이 힘들었지만 우리 조 정말 감사합니다.
-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느낀 게 많았다
- 공공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에 비교적 덜 구애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 고등학생 신분이라 많이 도움이 못됐습니다. 내년 이후년엔 공부해와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 팀 나눌때 어수선 했지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좋았습니다.
- 개발자들과 같이 일해본 게 처음이라 배운 게 많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죄송스럽네요.
- 아기자기하고 재밌었습니다.
-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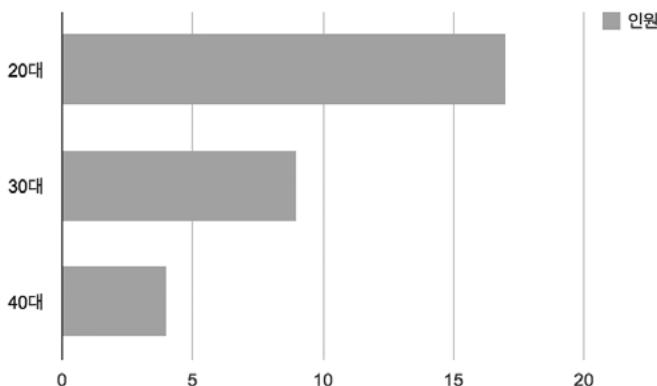
-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공데이터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혈. 대박.
- 힘들겠지만 행사 자주 개최해주세요. 체조 인상 깊었습니다.
- 정부2.0 달성을 위해 정부의 노력, 빌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좀 더 이런 기회를 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 점점 더 많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해 보인다.
-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 좋다.
- 아이디어는 전세계 어디나 비슷한 듯. 결국 꾸준한 개선과 운영이 필요.
- 공공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이렇게 능력 있으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니! 새삼 뭉클해진 1박 2일
- 실력자가 많아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안자면 엄청 졸리구나, 식욕도 떨어지고.
-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생각치 못한 많은 정보들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 사람이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 죽어라 달려 소진된 느낌이에요.
- 짧은 시간에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실력을 키워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이 되자.
- 진행이 매우 좋았어요 느낌이 따뜻해요.

2013년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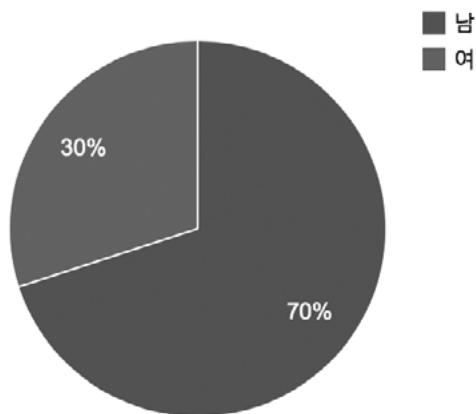
2013년 캠프 참가자가 평가한 공공데이터 문제점



참가자 연령 분포



참가자 성별 분포



한줄평 – 데이터에 대한 평가 위주로 담았습니다.

-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현 방식과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 데이터를 개방하기 이전에 개방할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아카이빙이나 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래아한글 좀 그만 써주세요!
-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홍보도 더 이루어진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공데이터가 시민들/기업 등 정보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공공데이터를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적인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 자료 유형별로 동일된 구조와 파라미터 이름, 필드 이름 등을 정립해서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데이터를 쿼리가 가능한 형태로 개방 필요, 지속적 관리를 위한 의무화, 평가 등 필요, 공무원/국민 대상 데이터 교육 필요,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필요, 위치 정보(좌표 정보) 제공 의무화
-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공공데이터라면 누구든지 같이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수정에 대한 요청의 포워딩이 빨랐으면 좋겠다
- 통합된 제공 루트, 스키마 제공과 검색 기능 필요, 일반 문서 형태 제공은 불편함
-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듯, 이런 자리 원츄!!
-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 공개하는 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 공공데이터 자료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데이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음
- 좀더 정확하고 세밀한 데이터 공유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가 투명해지길
-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중요, 다양한 활용자료도 세밀한 자료도 의사제시가 아닌 제대로 쓸모있는 자료 를!!
- 좀 더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 화이팅, 대한민국!
- 많은 것이 오픈 되어있는 것 같지만 풍요 속 빈곤처럼 기업과 정부의 연관 데이터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활용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실감됨, 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알려야겠다
- 주요 공공기관이나 건물에 대한 데이터가 open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사실 Let's shake 공공데이터 캠프에 오기전까지는 공공데이터가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개발이나 기획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고,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더 많은 공개가 필요하다
- 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API공개가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지길

참/가/자/인/터/뷰

< 질문 >

1.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
2.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예 : 개발하면서 불편했던 점, 더 필요한 것, 코드나무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등등)

2012년 ‘안심병원’ 참여자 권오현

1. 올해 데이터를 심평원에서 긁어와 준비해 놓았지만, 생업에 쫓겨서 올리지 못하는 중이구요. 올초까지는 매주 한번씩 만나 보육, 교육, 복지, 안전과 관련한 여러 공개 데이터를 취합하고 병원 외의 카테고리도 확장할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디자인도 바꿀 계획이었구요.

2. 아직은 정부나 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다면 보여주는 단계인 것 같아요. 좀 더 임팩트 있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개발을 직접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 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더 필요하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는 개인이나 소규모 제작사에겐 공모전 같은 형태로 참여의 기회가 제시되고, 기존에 공공 기관에 납품하던 업체들에게는 본격적인 기회가 주어지는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주로 하는 질문들이 “만들면서 뭐가 불편했어요”와 “뭘 도와드릴까요”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질문 이전에 “만들고 싶어지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끌어내는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자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코드나무가 개발자들을 내적인 동기를 이루기 위해 기술을 다루는 사람으로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2012년 캠프 참가자 ‘지켜보고 있다’ 이철혁

1. 캠프때는 자체적으로 API를 만들었고, 간단한 이용 샘플을 만들어 데모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디자인을 보강하고 부채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하여,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어 잠시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정보시스템부서에서 API로 제공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API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던 것을 개발해 주시기로 하였고, 11월 중순부터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오픈 API로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초기 목적은 서울시의 게시판 형태로 제공되던 예산 집행 정보등을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API로 개발 한 것이므로, 서울시가 API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어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

2.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가 호스팅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레 서비스도 종료되었습니다. 웹서비스의 경우 호스팅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결과물에 대한 연속성 유지도 가능하고, 유지보수도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개와 링크등이 모여있는 yellow-page 가 있다면 정말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2, 2013년 캠프 참가자 'Here, 여기', '안전한 골목길' 강신범

1. 'Here 여기'의 경우 그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전한 골목길'의 경우에도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없으나 당시 함께했던 독수리오형제팀은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작업에 대해서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2. Here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골목길의 경우 공개 데이터의 질/양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이었으며 꼭 CCTV만이 아니라 노란대문 같은 데이터도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2012, 2013년 캠프 참가자 '국회 내비게이터', '그랬던, 그가' 박은정

1. (a) 2012년 '국회 내비게이터': 국회 내비게이터는 아쉽게도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였고, 당시에 빠르게 작업하느라 자동 업데이트까지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팀포옹이 이 작업을 계승하여, 조만간 Pokr(<http://pokr.kr>)에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형태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2012년 공공데이터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당시 한 팀으로 작업했던 다섯 명 중 세 명이 지금도 인연을 이어가며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 (b) 2013년 '그랬던, 그가': 이건 제가 팀원으로써 참여했다기보다는 시키는 것만 급하게 개발했던지라 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트랙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글에서 "그랬던, 그가"를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기는 하네요? ㅎㅎ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많은 유명인들의 말말말에 대해 적용하고(물론 임의의 사람을 입력했을 때 결과를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자동 업데이트 되게 고친다면 재미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네요. 반응속도도 많이 빨라지면 좋겠네요 ^^^;
2. 2012년 코드나무에서 같이 일할 팀원을 만나게 된 만큼, 코드나무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데이터와 그의 활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더 풍성한 네트워킹+아이디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013년 캠프 참가자 '불1000없이 살기' 펭도(조성도)

1. 캠프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2. 기획과 디자인보다는 개발에 시간이 많이 드는데, 개발환경을 미리 세팅하고 시작했으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와서 아이디어를 내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상이 다들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초기에 공공데이터 이전에 '공공'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작업을 해야 사회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강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 코드나무 최근 활동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

“공공데이터를 어떻게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드나무 활동가 제니퍼님의 도움으로 저널리스트, 디자이너를 지망하는 두 대학생이 모이게 되었고, 7월 말 첫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와 디자이너는 대표적인 ‘공공데이터를 읽어주는 사람’이고, 이 둘은 공공데이터 인포그래픽 기사로 많은 이들에게 공공데이터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알렸습니다. 본 연재물은 블로터에 연재되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 페이스북, 더 트래블러, 한경 비즈니스 등에서 소개·활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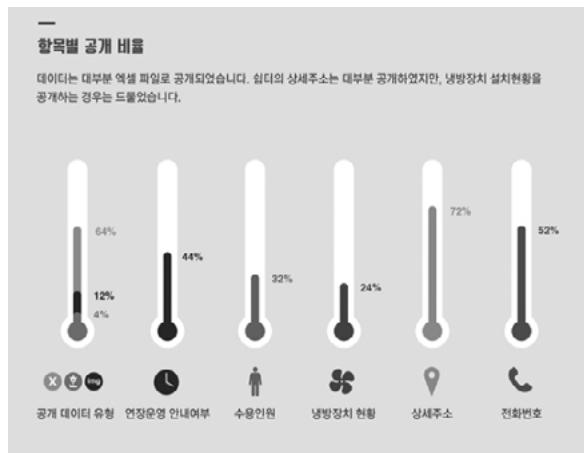
1. 서울 어린이집

서울시에는 57만여명의 영유아와 6,7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 넉넉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안전행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상세데이터, 보육시설 수요, 영유아 인구 데이터를 찾아 이리저리 조합을 하며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의 첫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작업이라 수만개의 셀에 가득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구글 퓨전테이블을 접하고 처음 맵핑을 진행했을 때, 놀라움과 신기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6,700여개의 맵핑은 1~2시간이 걸리기도 했죠.(http://codenamu.org/blog/2013/08/20/the_reader1/)

2. 무더위 쉼터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찜통 더위 속에서 길손을 위해 만 들어진 무더위 쉼터 건만 어디에 있는지 통… 찾기 어려웠죠. 서울의 각 구청에서 무더위 쉼터를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매일 보도되던 무더위 쉼터였기에 데이터를 찾는 것은 쉬울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청과 각 구청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무더위 쉼터의 홍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나 봅니다.

며칠을 걸려서 각 구청과 심지어 동 단위 웹페이지까지 찾아들어가 서울에 있는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정보를 찾았지만, 모든 곳의 데이터를 찾을 수는 없었고, 자치구 별로 공개하는 내용도 달랐고 공개 방식도 제각각이었어요. PDF, HWP는 예사였고 jpg와 동별로 ppt파일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제각각인 제공 방식과 간접 일자 때문에 특정한 이야기를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 두번째 무더위 쉼터는 각 자치구의 공개 현황을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점이 무더위가 좀 누그러진 뒤라 아쉬움이 있지만,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Guardian US의 ‘Gay rights in the US, state by state’ (<http://www.theguardian.com/world/interactive/2012/may/08/gay-rights-united-states>)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codenamu.org/blog/2013/08/29/sultriness_she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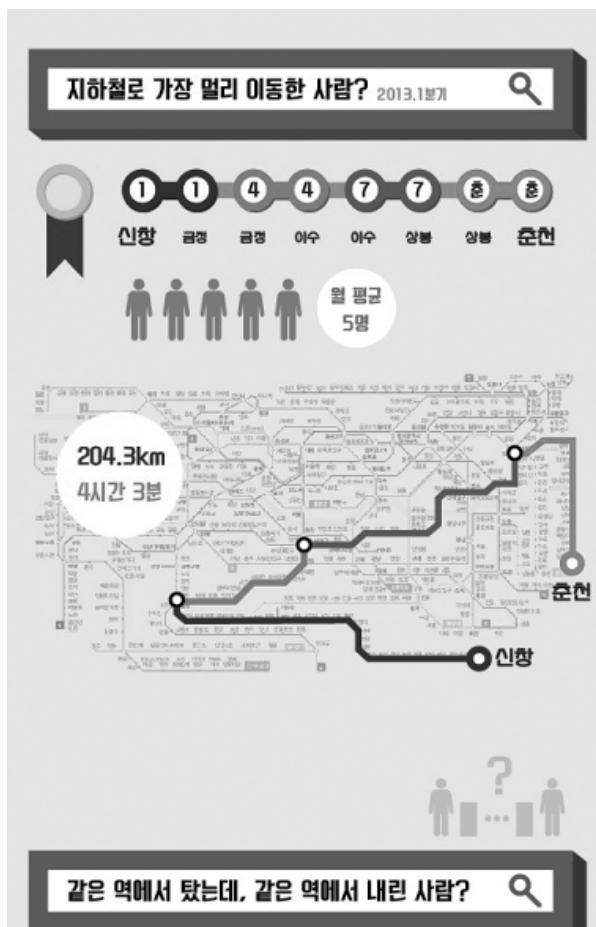




3. 서울 지하철

전체 작업물 중에 가장 뜨거운 반응이 왔던 작업입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 통계는 정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기사로 다뤄지는 소재입니다. 그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존에는 활자나 간단한 도표로만 다뤄지던 것에 반해, 보다 주목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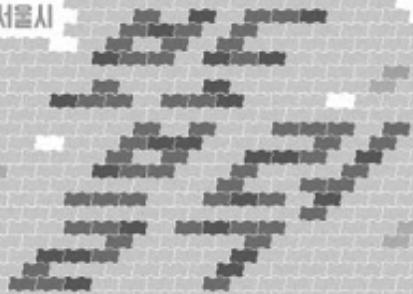
인포그래픽의 목적인 정보를 어떻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작업 과정에 활용한 데이터는 경기교통DB, 국가교통DB,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 가져왔으며, 경기교통DB와 국가교통DB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야에 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데이터를 원자료로 공개하고 있어 데이터의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돋보였습니다.(http://codenamu.org/blog/2013/09/15/seoul_subway/)



공공데이터를 읽는 남과 여 4

길을 따라 살펴보는 보도블럭 이모저모

서울시



"이후, 또 끌어?"

연말만 되면 속이 두렵하던 보도블럭은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였죠.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시는 보도블럭 10개량을 발표하며, 보도블럭 공사를 감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하던대, 알고 계셨나요?

많은 이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보도블럭, 사실은 걸을 걸을마다 항상 든든한 길 품무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공시설물이랍니다. 딱딱한 말들과 가시들린 이야기는 잠시 뒤로하고 보도블럭의 이모저모를 만나보세요.

서울시 보도블럭은 얼마나 길까?



얼마나 넓을까?



4. 보도블럭

1제곱미터에 2억원짜리 기획 초기, '황금길'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투명성의 문제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을 소재가 보도블록 예산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보도블록=연말 예산 털기'라는 등식을 갖고 있을 정도이나…보도블럭은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개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소재였던거죠. 하지만 보도블럭 자료는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찾을 수 없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름 가량이 걸려 입수한 2009 ~ 2013 서울지역 보도블록 교체 현황에는 1m²당 2천만 짜리 보도블록이 있었습니다. 황금길을 넘어 다이아온드를 깔았을 법한 서대문구의 보도블록. 그러나, 예산액 기준이라 실제로 쓰인 비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결정적으로 보도블록 이외의 비용이 함께 집계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데이터를 검수하고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에 걸렸습니다.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었습니다. 본 작업은 다음 로드뷰를 이용해서 동적 인터랙티브가 가미된 인포그래픽을 시도해보았습니다. (<http://codenamu.org/blog/2013/10/22/sidewalk/>)

5. 후기와 공공데이터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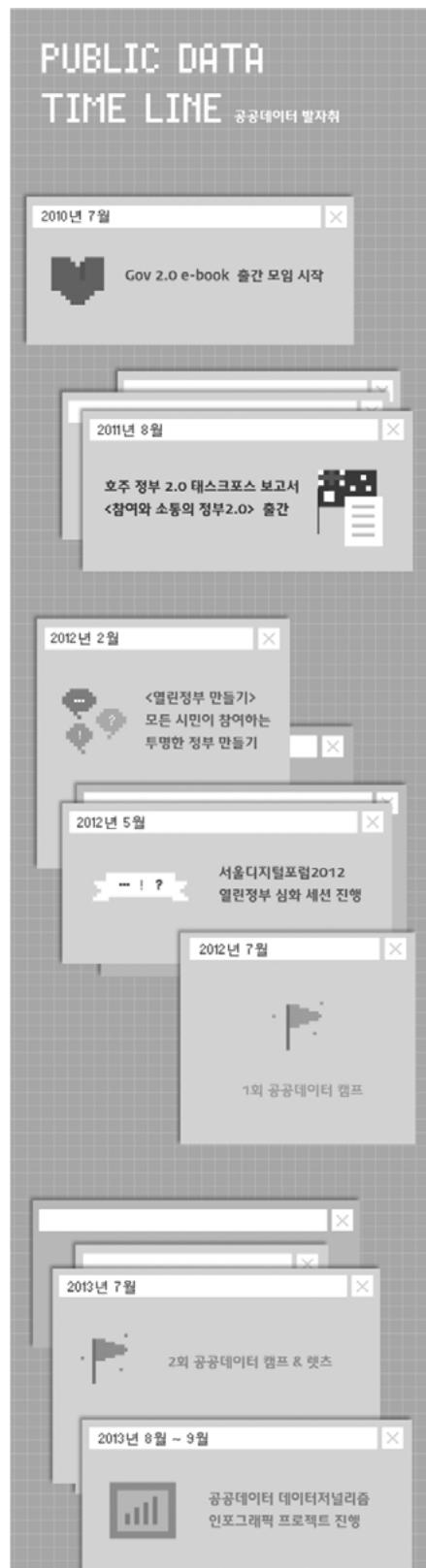
인기가 많은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비교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싶었고, 지하철의 경우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전체 노선과 의미있는 지하철 역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거나 버스 승하차 데이터와 합쳐서 유동인구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치 데이터의 경우 정치 분야 오픈 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있는 팀포풍의 도움을 받아 장기 계류 중인 법안, 국회의원의 법안 본회의 통과율 랭크, 법의 법안 순위 등을 진행해서 사람들의 정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표 행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작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데이터 취합이 늦어져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쉬움은 접어두고 4번에 걸친 공공데이터 데이터저널리즘/인포그래픽 작업에서 겪은 어려움과 시사점을 정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모아보았습니다.

10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니다. 정부가 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부3.0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사는 모습이고, 복잡한 숫자와 난해한 용어로 그득한 데이터 셀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의 목적이었습니다. (http://codenamu.org/blog/2013/10/22/ogd_timeline/)

진행 / 임영제, 이예연

정리 / 임영제



2013년 과학기술오픈데이터 활용 캠프

과학기술 오픈 데이터 활용 캠프에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동안 40여명이 함께 했는데요. 과학기술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제 서비스/앱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져서 쉽게 지나치게되는 과학기술 정보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어요. 특히, 논문, 그리고 각종 전문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전달하기 위한 NDSL과 open api 서비스인 NOS를 운영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함께했는데요. 다른 해커톤, 캠프에 비해서 시간이 짧은 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참가자 분들의 열정으로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행사개요

- | |
|--|
| 주관 : 코드나무 |
| 후원 : KISTI |
|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
| 장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하 1층 중회의실2 |
| 캠프현장기록 : http://bit.ly/opencamp2013 |
| 현장사진모음 : http://bit.ly/lggCWYi |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기획단계에서는 KISTI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아이디어들이 역시나 캠프 때도 나왔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더욱 쉽게 접근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가 함께하다보니 어떻게 하면 일반사람들이 더욱 쉽게 과학 기술 오픈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총 5팀이 고민했는데요, 완벽한 개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 참여형태로 연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안한 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1 팀

- NDSL 논문 검색이 좀 불편. 기사에 관련된 키워드를 드래그앤파스로 자동으로 ndls 검색(파이어폭스, 구글크롬 플러그인처럼)
- 논문 작성자를 위한 참고문헌 툴

2 팀

- 청년창업자들(창업 희망자)들의 경우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 정보와 기술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위해 특허/연구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아이디어를 게시/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 네이버 지식인 검색의 인기 검색어와 키워드에 관련된 정보를 NDSL에서 찾아 제공

3 팀

- 검색방법/정확도 향상 방법을 중심으로 고민
- 삭제하고 싶은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의 정확도를 높임
- 논문 검색시 인용횟수와 이용자 추천수에 따른 검색결과 정렬 기능
- 검색 키워드가 해당 논문에서 언급되는 횟수에 따라 검색결과 정렬
- 논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 구분
- 즐겨찾기 기능
- 마인드맵 검색 – 이용자가 직접 편집가능한 마인드맵 검색기능. 중앙과 가지에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고 직접 이용하며 검색을 능동적으로

4 팀

- 토씨 차이로 서로 다른 검색결과가 나오는 것을 해결(ex. 서울대/서울대학교 서로 다른 결과)
- 엔하위키와 같이 사람들이 해당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을 제공
- 컨셉 : 창조적 사고를 거쳐서 나오는 마인드맵 키워드들을 손쉽게 연관 검색어로 바꿔 주어서 과학기술 공공데이터 검색을 도와주는 비영리의 공공데이터 매쉬업 검색 서비스.

5 팀

- Revyu에 있는 논문 정보를 같이 보여주거나, 키워드에 관련된 연구기관/대학을 보여주기, MS academic search – 해당 저자의 다른 논문을 찾아 제공
- 금주의 논문/특히 섹션의 API가 있다면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와 연계해서 제공

개발/구현 발표

각 팀들은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한두가지를 골라 실제로 개발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때문에 모든 팀들이 완벽히 개발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직접 시연하며 매쉬업을 통해 구현한 서비스를 발표하며 공유했습니다. 다섯 팀 모두가 멋진 서비스를 발표해주셨고, 참가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그 중 5팀의 논문/연구자 상세 검색이 1등상을 차지했습니다. 5팀은 revyu.com과 MS academic research를 활용해서 논문과 연구자에 대한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과학시간에 배웠던 머리 지끈거리는 물리 공식과 화학식, 영어와 기호들로 가득한 특허정보와 논문들은 전문가, 연구자들만 찾겠지 일반인들에게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과 고민들은 모두 기우였습니다. NDSL 자체로는 일종의 ‘전자도서관’에 머무를지 모르지만, 외부 서비스와 외부 data와 매쉬업을 한다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라 끝까지 완성된 서비스, 앱을 개발하기는 어려웠지만, 많은 이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눠주셨습니다.

각 팀 발표 슬라이드와 기록

- 1 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nUZWuvvmnP5Ik_85tEd_Rs8SZRI_7MQANAADXTbi_8/edit

- 2 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ryHI_F6XM0aExd6UotxMf8tIryisyoES46Q7DeLm5s/edit

- 3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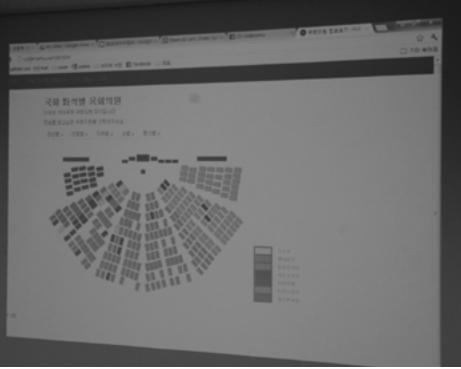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9-9DFLB59_xKnIvtli5tcHBFQcoXCTRSI8yv7Ca5k8/edit

- 4 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2oA641WH5HOBvcks4lVAwfhdV5-OCsA6TrkfqvJkhw/edit>

- 5 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34C6DhhuEjNWxieFJ88sWDlcNkrXufU0GiR7WhJhuc/edit>



05 공공데이터 발자취

Gov 2.0 e-book 출간 모임 시작	2011.7	공유자원포털 공식 오픈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보고서 - 참여와 소통의 정부2.0 출간	2011.8	
열린정부 만들기 -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 만들기	2012.2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오픈 베타
서울디지털포럼2012 - 열린정부 심화 세션 진행	2012.5	
1회 공공데이터 캠프 코드잼 3회	2012.7	
	2013.3.11	공공데이터 포털 정식 오픈
	2013.4.16	서울시, LOD 베타 서비스
	2013.7.11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2회 공공데이터 캠프 & 렛츠	2013.7.3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 제정
공공데이터 데이터저널리즘 인포그래픽 프로젝트 진행	2013.7	
	2013.8~9	
	2013.10	경기도, 공공데이터개방포털 1차 오픈
	2013.10.31	공공데이터법 시행
	연중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



06 공공데이터 개방사이트

국내 사이트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 <http://data.seoul.go.kr>
열린시정2.0의 가치 아래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한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행정정보 원자료 및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2013년 11월 27일 현재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자치구를 대상으로 469건의 데이터 시트, 164건의 지리정보, 그리고 528건의 Open API 등 총 2,026건이 개방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Linked Open Dat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정부3.0 정책을 전개하며, 코드나무 해커톤 지원과 빅데이터 연구 사업 지원 등 민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 <https://www.data.go.kr>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다. 이는 각 기관과 지방정부에 흩어져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개방, 검색, 관리가 가능한 포털 사이트로, 10월 30일 현재 892,954건의 데이터가 공개 서비스되고 있다.

경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 <http://data.gg.go.kr/>
경기도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시범 서비스 중

NOS - <http://nod.ndsl.kr>

과학기술 전문 DB인 NDSL의 Open API 서비스. KISTI가 운영

서울통계 - <http://stat.seoul.go.kr>

서울서베이로 대표되는 서울에 관한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

경기도 교통DB센터 - <http://gtdb.gg.go.kr>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역의 교통 및 대중교통 및 관련 분야의 통계, 연구자료 등을 통합 제공하며, 원자료까지 제공한다.

국가교통DB - <http://www.ktdb.go.kr>

대중교통 및 교통에 대한 통계 및 연구자료를 제공

공공정보 품질관리 지원센터

- <http://www.gooddata.kr>

국내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 및 평가,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Korea datahub - <http://thedatahub.kr>

OKF Korea가 운영하는 민간 open data hub site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통계청이 운영하는 통계 전문 사이트. 국내 정부 기관이 작성한 통계 및 OECD와 같은 해외 기관의 통계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공공데이터법) - [http://codenamu.org/](http://codenamu.org/blog/2013/07/31/opendata_law/)

[blog/2013/07/31/opendata_law/](http://codenamu.org/blog/2013/07/31/opendata_law/)

공공데이터법은 지난 6월 입법이 되어 10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공데이터법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개를 명령하며, 각 기관은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지에 상관없이 공개를 통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 데이터의 공개는 CSV, KML 등 의 기계가 판독 가능한 포맷(machine-readable format) 형태와 Open api, Linked Data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본 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2013년 하반기 설치되어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및 가이드 수립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http://opengovernmentdata.org>
OKFN의 공공데이터 워킹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핸드북 발간,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code for europe

- <http://codeforeurope.net>
유럽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

국외 사이트 및 기타

Code for America - <http://codeforamerica.org>

미국의 공공데이터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 세계 각 도시 별로 네트워킹을 진행/추진 중이다.

DATA.GOV.UK - <http://data.gov.uk>

영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Google Public Data Explorer

- <http://google.com/publicdata>

구글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전문 검색 서비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색인/검색 서비스 제공

Data.gov - <http://data.gov>

미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data.gov.au - <http://data.gov.au>

호주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Open Government Partnership

- <http://opengovpartnership.org>

호주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Open Government Data



07 2013년 현재 공공데이터 지형도

2013년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이터포털로 보면, 국가지식포털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공공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2011년 7월 개설된 국가공유자원포털로 발전되어 본격적인 공공데이터 포털의 모습을 표방하다 금년 3월 11일부터 국가공유자원포털에 국가지식포털이 통합되면서 국가정보자원 개방, 공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자원 개방, 공유체계 구축의 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총 16,305,468건의 데이터 링크와 768,577건의 데이터 원문, 29개의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어 외형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7월 11일에는 산·학·연·민·관 협력거버넌스를 표방한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이 출범하였고, 특히 7월 30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입법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어 10월 3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법안은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논의되어 온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두루 규정을 두고 있어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금년 6월 19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3.0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를 국정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곳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 경부터 보유 콘텐츠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적용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현행파악과 개방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온바 있는데, 현 시장 취임 이후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공공데이터 포털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여 금년 2월 26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거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셋은 총 1,095건이며, 401건의 오픈 API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달로그 서비스를 신설하여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외에 행정안전부 등 타기관의 목록도 통합제공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눈에 띠는 것은 공공데이터 활용성 극대화를 위하여 데이터 성격에 따라 오픈 API, 파일, CSV등 복수의 포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월 16일에 LOD(Linked of Data)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3년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과 시스템이 마련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시작하는 등 일단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필요한 기본 환경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방정부 모두 최고위 리더십에서 공유·개방·참여의 가치를 표방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끌어냄을 목표로 하는 정책아젠다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리더십의 역할이 큰 만큼 그 추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공데이터의 활용성과 국민의 참여도,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가 아닌 국정과 시정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탈 등에서 국민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실감되지 않고 과거의 정책 홍보 및 추진 방식과 큰 차별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작은 것부터라도 행정서비스나 정책 수립에의 실질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데이터의 내용 및 그 품질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얻기가 힘듭니다. 아직 이용자 측면에서는 활용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했을 때 만나게 되는 걸림돌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기상·교통·지리 등 13개 전략분야의 개방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전략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의한 전반적인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분야 역시 아직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따른 혁신을 뒷받침할 만한 동력이 부족합니다. 우선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인한 최고의 혁신, 즉 투명성의 확보나 협력민주주의 실현, 창의적인 솔루션의 개발이나 막대한 산업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를 매개로 한 시민과 정부의 경험이 가져올 문화의 변화라는 혁신의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적 변화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동인이자 최대의 성과이지만 이는 경제성과처럼 쉽게 측정되지도 않고 금새 모습을 갖추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개방 정책 추진에 있어 이 부분이 단순한 구호나 키워드를 넘어 실현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를 위해 기꺼이 국민과의 관계나 국민의 참여문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전환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정부의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춘 민간 주체들이 아직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문성과 조직, 그리고 지속성을 갖춘 커뮤니티와 민간단체들이 이른 바 준비된 시민으로서 모습을 갖추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그로 인한 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2013년이 미래의 혁신이 시작된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지, 또 하나의 실속없는 구호와 의욕만 있었던 시기로 기록될지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습니다.

글 / 윤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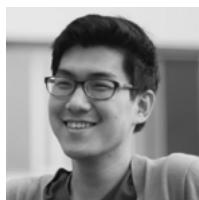
강현숙 / 이번 책의 부제를 정하라고 하면 “금성에서 온 시민이 화성에게 온 정부에 말걸기” 라고 정하고 싶어요. 2년동안 열린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아이디어,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을 모두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을 내기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양석원 / 이장이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고, 다시 태어나면 돌고래로 태어나고 싶고, 다음 멘터리를 꼭 한 번 찍어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든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입니다. 비영리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의 프로젝트 리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영제 / 대학에서 언론홍보학을 전공했고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은 코드나무 활동가입니다.



정다예 / 참가자분들과 다시 연락하며 즐거웠던 코드나무 행사를 떠올리게 돼서 좋았어요^__^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는 결과물들이 드디어 예쁜 옷을 입으니 더 없이 기쁩니다!



이예연(표지디자인) / 시각디자인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워드와 영감의 표현에 관심이 있으며 두 달에 한 번 발행되는 버스 문화 잡지 <Thinking Bus>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상미(기획/진행) / ‘호기심은 공포를 이긴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서울 모 처에서 카페인 척하는 정체불명의 공간 ‘어쩌면 사무소’를 친구와 공동운영하고 있어요. 우선은 ‘기록’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이번 책 작업,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다음 기회로 넘겨두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조아신(편집) / 지리산 자리에 자리잡은 시골 마을 한켠에서 ‘지리산문화공간 토덕’이라는 마을카페를 기반으로 여려가지 즐거운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드나무의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만) 아마추어 편집실력이라 어떻게 나올지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다 이해해주시리라... 믿으며..

코드나무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연 1회, 총 2회의 공공데이터 캠프를 열었습니다. " Let's Shake! " 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시민과 활동가, 공무원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즐겁고 활기찬 자리였습니다.

[Let's Read! 공공데이터 캠프]는 바로 그 캠프를 함께 기획/운영한 코드나무 팀과 수많은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후원자 여러분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록물입니다. 2013년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작은 도전의 기록이 의미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